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혜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회적 거부가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속 욕구와
자기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성보람

사회적 거부가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속 욕구와
자기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박혜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성보람

인 준 서

성보람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1월

심사위원장.....진 경 선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조 영 일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박 혜 경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 사이에서 소속 욕구와 자기존중감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하여 모집된 296명의 직장인들을 사회적 거부 조건과 통제 조건으로 무선할당하고, 자기존중감, 소속 욕구 및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금전 사용 의도 및 시간 사용 의도로 측정하였으며, 친사회적 행동 의도 측정에서 순서 효과가 관찰됨에 따라 연구 참가자들의 자료를 친사회적 금전 사용 의도에 대한 156명의 자료와 친사회적 시간 사용 의도에 대한 140명의 자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이 지지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경로에서 가설과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금전 사용 의도를 결과변수로 하는 모형에서 발견되었으며, 소속 욕구가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금전 사용 의도 및 금전 사용 의도를 결과변수로 하는 모형에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사회적 거부, 친사회적 행동 의도, 소속 욕구, 자기존중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8
1. 사회적 거부.....	8
2. 친사회적 행동 의도.....	11
3. 소속 욕구.....	14
4. 사회적 거부, 소속 욕구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	17
5. 자기존중감.....	21
6. 사회적 거부와 소속 욕구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역할.....	23
III. 연구 문제 및 가설	25
IV. 연구 방법	27
1. 연구 참가자.....	27
2. 측정 도구.....	29
-1) 조작 점검.....	29
-2) 무관과제.....	30
-3) 자기존중감.....	31
-4) 소속 욕구.....	31
-5) 친사회적 행동 의도.....	32

-6) 인구통계학적 특성.....	33
3. 연구 절차.....	34
4. 분석 방법.....	36
V. 연구 결과.....	37
1. 사회적 거부 조작 점검.....	37
2.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 및 상관.....	42
-1)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관계.....	42
-2)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관계.....	49
3.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속 욕구와 자기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53
-1) 사회적 거부와 소속 욕구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	54
-2)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의 관계에서 소속 욕구의 매개효과.....	56
2-1) 사회적 거부와 금전 사용 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속 욕구의 매개효과.....	56
2-2) 사회적 거부와 시간 사용 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속 욕구의 매개효과.....	57
-3)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의 관계에서 소속 욕구와 자기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58
3-1) 사회적 거부와 금전 사용 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속 욕구와 자기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59
3-2) 사회적 거부와 시간 사용 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속 욕구와 자기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60

VI. 논의.....	62
1.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	62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64

참 고 문 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 차

표 1.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건 간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한 응답 차이 검증 결과($N=156$)	38
표 2.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건 간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한 응답 차이 검증 결과($N=140$)	38
표 3.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건 간 강렬함, 일상성, 생생함 문항에 대한 응답 차이 검증 결과($N=156$)	40
표 4.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건 간 강렬함, 일상성, 생생함 문항에 대한 응답 차이 검증 결과($N=140$)	40
표 5.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56$)	43
표 6.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40$)	45
표 7. 금전 사용 의도 모형의 사회적 거부 조건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N=80$)	47
표 8. 금전 사용 의도 모형의 맛있는 음식 조건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N=76$)	48
표 9.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건 간 주요변수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 결과($N=156$)	49
표 10. 시간 사용 의도 모형의 사회적 거부 조건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N=66$)	51
표 11. 시간 사용 의도 모형의 맛있는 음식 조건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N=74$)	52

표 12.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건 간 주요변수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 결과($N=140$)	53
표 13. 금전 사용 의도의 모형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N=156$)	55
표 14. 시간 사용 의도의 모형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N=140$)	55
표 15. 금전 사용 의도의 모형에서 매개효과 검증 결과($N=156$)	56
표 16. 금전 사용 의도의 모형에서 간접효과 검증 결과($N=156$)	56
표 17. 시간 사용 의도의 모형에서 매개효과 검증 결과($N=140$)	57
표 18. 시간 사용 의도의 모형에서 간접효과 검증 결과($N=140$)	58
표 19.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N=156$)	59
표 20.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N=156$)	61

그림 목 차

그림 1. 금전 사용 의도와 관련된 연구 모형.....	26
그림 2. 시간 사용 의도와 관련된 연구 모형.....	2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삶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까운 이들과 공유한다(Tomasello, 2014).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도 온전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TV, 신문, 서적 등의 매체를 통하여 타인의 사건이나 생각을 접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삶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이 크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된다.

소속 욕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 동기로서(Buss, 1990; Maslow, 1943), 사람들이 사회적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사회적 위축이나 동요를 방지하며,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Lee & Shrum, 2012; Molden, Lucas, Gardner, Dean, & Knowle, 2009). 소속 욕구가 충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보다 잘 맺고 유지하는 특징을 보인다(Aronoff, Strollk, & Woike, 1994). 심리학자들은 타인에게 수용되고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닌 특징으로 간주한다(Baumeister & Leary, 1995; Bowlby, 1973).

소속 욕구는 사람들의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긍정적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보았으며(권석만, 2008), 소속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외로움을 보고하는 사람들은 삶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Mellor, Stokes, Firth, Hayashi, & Cummins, 2008). Reis, Sheldon, Gable, Roscoe와 Ryan(2000)은 연구참가자에게 타인과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

및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족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만족이 중요하다는 점이 밝혀졌다(허청라, 구재선, 서은국,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리고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삶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속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항상 타인에게 수용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타인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기도 한다. 사회적 거부는 개인이 소속되었던 관계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개인의 소속 욕구를 좌절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DeWall & Bushman, 2011).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호소하고, 타인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며, 소속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 거부는 소속 욕구나 외로움 이외에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서조절 능력이 감소되고, 친사회적 행동을 덜 보였으며, 더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정서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보였다(Baumeister, DeWall, Ciarocco, & Twenge, 2005; Baumeister, Twenge, & Nuss, 2002; Beekman, Stock, & Markus, 2016; Boivin, Hymel, & Bukowski, 1995; Buckley, Winkel & Leary, 2004; Garris, Ohbuchi, Oikawa, & Harris, 2011; 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한편, 사회적 거부는 모든 문화에서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되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갖는 문화적 특징으

로, 자신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고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서 기인한다(Kim, Kasser, & Lee, 2003). 한국은 상호의존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상호의존적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가까운 타인을 자기개념 안에 포함시킨다(Markus & Kitayama, 1991). 상호의존적 문화에서는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고 자신의 독립성과 독특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즉,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는 개인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고,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가치에 헌신하며, 관계 속에서 보다 잘 기능하는 것이 독립적인 문화에서보다 더 권장된다(조궁호, 2007; 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상호의존적 문화의 사람들은 이 같은 특징으로 인해 공동체의 가치와 관련된 정보와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부정적인 평판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Yamagishi, Hashimoto, & Schug, 2008). 더불어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상호의존적 문화의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인 사회적 거부를 피하려는 것이 관찰되었다(Hashimoto & Yamagishi, 2013). 요컨대, 한국 사람들은 상호의존적 문화의 특징에 따라 관계에서 유사성과 조화를 선호하고, 사회적 거부를 피하고자 하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타인과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인 사회적 거부에 한국 사람들이 독립적 문화의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앞서 사회적 거부가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지만(Twenge et al., 2001; 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3),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이 항상 부정적인 반응만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적 거

부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Buckley et al., 2004; Garris et al., 2011; Twenge et al., 2003; Williams, Cheung & Choi, 2000; Williams & Sommer, 1997).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며, 타인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Williams et al., 2000; Williams & Sommer, 1997). 사회적 거부를 겪은 사람들은 소속, 관계와 관련된 사건을 떠올리고자 하며 (Gardner, Pickett, & Brewer, 2000), 소속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과거의 타인과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는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veland, Smeesters, & Mandel, 2010). 이는 사회적 거부 또한 사회적 자극이 주어지는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친사회적 행동이나 반응을 보이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기인하였다(Lee, Shrum, & Yi, 2014).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타인과 나누고, 타인에게 공감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사회적 거부를 비롯한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소속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보이게 된다(Maner, DeWall, Baumeister, & Schaller, 2007). 더하여 소속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친사회적인 소비를 많이 할수록 더 높은 안녕감을 보였다(신지은, 2018; Aknin, Dunn, & Norton, 2012). 또한, 높은 사회적 불안을 보이는 사람들 중 타인에게 친절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간관계에 더 많이 만족하고, 사회적 회피 반응이 주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Alden & Trew, 2013). 즉, 사회적 거부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과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람들의 소속 욕구를 높이며, 타인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사회적 행동, 또는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Baumeister et al., 2002; Beekman et al.,

2015; Boivin et al., 1995; Buckley et al., 2004; Garris et al., 2011; Maner, et al., 2007; Williams et al., 2000; Williams & Sommer, 1997). 그런데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적 거부의 영향이 비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은 사회적 거부와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같은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이라도 앞으로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달리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Maner, Dewall, & Schaller, 2007). 이와 달리, 최근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거부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줄 때 고려할 수 있는 개인차 변수들을 밝히고자 했다(신지은, 2018; 허청라 외, 2014; 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을 사회적 거부가 친사회적 행동 간에 일관되지 않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제시하였다. 이는 자기존중감이 사회적 거부 및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Baumeister et al., 2003; Derfler-Rozin, Pilutla, & Thau, 2010; Ford & Collins, 2010; Williams, 2009). 즉, 개인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동일한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더라도 다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자기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특징을 갖는다고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외부의 환경에 덜 휩쓸리고, 자신의 내부에 더 집중하며,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한다고 보고되었다(김민정, 이동귀, 2007; Brown, 2010; Brown & Marshall, 2001). 반면,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상황을 접했을 때,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것으로 보고되었다(Baumeister et al., 2003).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과 달리 일시적인 사회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Nezlek, Kowalski, Leary, & Holagate, 1997). 또한, 비교적 낮은 자기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비교적 높은 자기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거부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Gyurak & Ayduk, 2007; Twenge & Campbell, 2003).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부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으며, 사회적 거부의 위협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거부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람들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사회적 거부가 소속 욕구를 매개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가 소속 욕구를 매개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는 것이 소속 욕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즉, 사회적 거부가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관찰된 일관되지 않은 관계를 자기존중감이라는 개인차 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거부라는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거부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Beekman, Stock, & Howe, 2017), 이로 인해 소속 욕구가 덜 높아질 것이다. 반면,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였을 때 새로운 관계에 포함되거나 다시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 많이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더하여 많은 친사회적 행동 연구들에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금전과 시간을 나누는 것을 합쳐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였다(Aknin et al., 2013; Lee, Piliavin, & Call, 199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타인에게 금전과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측정할 것이며,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로 나누어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보이는지 알아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거부

사회적 거부는 사람들의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며, 어린 시절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서 경험할 수 있다(Williams, 2009). 또한 사회적 거부는 가까운 가족, 연인 및 친구부터 먼 타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에서 관찰된다(Asher, Rose, & Gabriel, 2001). 사회적 거부(social rejection)는 배척(ostracism),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더불어, 타인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소속감을 가지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를 위협하는 요소이다(Baumeister, Brewer, Tice, & Twenge, 2007; Baumeister & Leary, 1995; Buss, 1990; Maslow, 1943).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 배척 및 사회적 배제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주로 사회적 배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부, 배척 및 사회적 배제는 각각 다른 상황을 다루기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Williams, 2009). 사회적 거부는 특정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관계망에서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선언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Leary et al., 2005; Williams 2009에서 재인용). 배척은 무시와 배제를 포함하며, 자신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한 적 없는 사람이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이유 없이 나타날 수 있다(Leary, 2001; Williams, 2007; Zadro, Williams, & Richardson, 2004). 사회적 배제도 이와 유사한데, 많은 연구들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단절되거나 고립되어 있는 현재 또는 미래의 상태를 떠올리는 것으로 사회적 배제를 정의하였다(Twenge et al., 2001; 2003). 이 중 사회적 거부는 무시나 사회적 배제보다 더 큰 사회적 상실감과 부정적인 정서를 주

며(Molden et al., 2009), 타인과 적합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적 거부는 무시와 사회적 배제보다 사람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간주되었다(Folkes, 1982; Leary, 2001).

선행 연구들에서는 연구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거부를 조작하였다. Baumeister 등(2005)에서 사람들에게 “당신과 일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없으므로, 당신은 혼자서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라는 말로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게 하였다. 그리고 Eisenberger, Lieberman과 Williams(2003)의 연구에서는 사이버 볼(cyber ball) 게임을 통해 사회적 거부를 조작하였다. 사이버 볼 게임은 온라인 상에서 가상의 상대와 공을 주고받는 게임으로, 게임 도중 연구 참가자들에게 타인으로부터 공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겪게 함으로써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참가자들에게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자신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사회적 거부를 조작하였다(Molden et al., 2009). 더하여 많은 연구들에서 사람들에게 거부 경험을 회상, 또는 상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부를 점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참가자에게 사회적 거부를 떠올리게 할 것이며, 이는 효과적으로 사회적 거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지수, 양재원, 2018; Cheung, Gardner, & Anderson, 2015; Fiske & Yamamoto, 2005; Maner et al., 2007; Pickett, Gardner, & Knowles, 2004; Yi, Kim, & Hwang, 2017; Zhong & Leonardelli, 2008).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적 거부가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거부가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였다(Baumeister et al., 2002; Carter-Sowell, Chen, & Williams, 2008; Eisenberger, 2012; Eisenberger, 2015; Folkes, 1982; Leary, Tambor, Terdal & Downs, 1995; Lee & Shrum, 2012; Steele, 1988; Tesser, 1988; Twenge et al., 2001;

2003). 사회적 거부나 배제는 부적 정서를 생성하고(오민정, 황윤용, 2014; Williams et al., 2000), 기억을 왜곡한다(Gardner, Pickett, & Brewer, 2000). 또한 사회적 거부는 각 개인이 갖는 자신의 가치와 소속 욕구를 위협하며(Leary et al., 1995 Lee & Shrum, 2012; Steele, 1988; Tesser, 1988),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illiams, 2007). 더 나아가, 사회적 거부는 자기 조절을 곤란하게 하는 요소로서,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위협한 행동을 하며, 주어진 과제에 대비하는 것보다 현재 즐거운 일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였다(Twenge et al., 2003; Twenge et al., 2007).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통제감을 감소시키고 무기력해지는 등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미루고,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며, 장기적으로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흡연, 음주, 지연 행동들을 지속하는 등의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였다(Baumeister & Scher, 1988). 사회적 거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체온을 조절하는 것에도 곤란을 느끼는 것과 같이 신체적 이상을 호소하기도 했다(Zhong & Leonardelli, 2008).

위에 기술한 사회적 거부의 부정적인 영향과는 반대로 사회적 거부가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과 어울리고자 하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Lakin, Chartrand, & Arkin, 2008; Lee & Shrum, 2011).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부를 당한 사람들은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방하는 행동이 많이 보였고(Lakin et al., 2008),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것이 관찰되었다(Lee & Shrum, 2011),

요약하면, 사람들은 일상의 여러 장면에서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며, 사회적 거부로 인하여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부는 자기조절 능력을 감소시키고, 자기 파괴적 행동을 초래하는 등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더불어,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것 또한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보이게 되는 것이 어떠한 경로로 나타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2. 친사회적 행동 의도

친사회적 행동은 선행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었다(Dawkins, 1989; Eisenberg, 1986; Eisenberg, Fabes, & Spinrad, 2006; Eisenberger & Mussen, 1989; Rushton, 1989). Eisenberg와 Mussen(1989)은 친사회적 행동이 타인에게 정서적 공감을 제공하고, 여타 보상이 없이도 나타나는 자발적인 행동으로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예로는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 외에도 타인에게 협력하는 것, 타인을 돕는 것, 타인을 위로하는 것과 같이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는 행동이 있다(Eisenberg, Mussen, 1989). 다른 연구들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동기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Dawkins, 1976; Eisenberg, 1986). 그러나 이후 연구들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에게 자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으로서(Eisenberg et al., 2006), 이타행동과 같은 비이기적인 행동에서부터 자신의 이해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도움행동까지 포함한다고 제안하였다(Rushton, 1989). 이에 더불어, 이지언, 정익중, 백종립과 Byambaakhuu(2014)의 메타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공감, 감사, 친구나 교사 또는 부모로부터의 지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즉,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자신을 희생하는 것과 타인에게 정서적인 공감을 하는 것에서 이해타산적으로 타인을 돕는 것까지 아우르는 폭 넓은 개념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의도나 행동을 보이는 것인가? 흔히, 친사회적 행동이 타인을 돕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타적 동기만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사람들이 타인을 돕는 동기는 순전히 타인을 위하여 타인에 대한 공감과 동정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오류이다. Batson, Ahmad와 Stocks(2011)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행동은 '이타적 동기'와 더불어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도 초래된다. 타인과의 공감을 통한 친사회적 행동은 순간적인 정서적 고양이나 사회적 책임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타인의 상황이나 심정에 공감함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친사회적 행동은 순수하게 타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는 행위로 이타적 동기에 의해 나타난다(Batson et al., 2011). 그러나, 동일하게 타인을 돕는 행위지만, 이타적 동기의 발로인 행동과 달리 표면적으로만 타인을 도우며, 실제로는 자신을 위하여 타인을 돕는 이기적 동기의 친사회적 행동도 나타날 수 있다. 계산을 통하여 나타난 이기적 동기의 행동이더라도,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행위로 친사회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기적 동기에 바탕을 둔 친사회적 행동은 처벌이나 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보고되었다(Axelrod, 1986; Baston et al, 2011; Smith & Bird, 2000; Warburton & Terry, 2000).

종합하면, 사람들은 타인에게 공감함으로써 이타적인 동기로 친사회적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타인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이기적 동기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계산에 의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을 친사회적

행동의 주된 동기로 바라보지만, 이기심만으로는 친사회적 행동을 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타심 또한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로 간주된다(손은주, 2016; Schroeder & Graziano, 2015).

친사회적 행동의 정의뿐만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방법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연구참가자에게 양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도덕 판단을 하는 것을 관찰하거나(원정애, 송현주, 2009), 실제로 기부 행동을 얼마만큼 수행하는지 관찰하는 것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였다(방준호, 최종안, 최인철, 설설희, 2018; Koo & Fishbach, 2016). 또한, 친사회적 행동은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할 의도를 가졌는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측정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의도를 파악하는 방식 역시 타인에게 보이는 친사회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지은, 2018; Aknin et al., 2013; Graziano, Habashi, Sheese, & Tobin, 2007).

본 연구에서는 사람에게 소중한 자원인 금전과 시간을 타인에게 얼마만큼 사용할 의향인지를 측정할 것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주어진 금액을 타인에게 얼마만큼 기부할 수 있는지, 자신의 시간 중 얼마만큼을 자원봉사에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측정하였다(Aknin et al., 2013; Batson et al., 2011; Lee et al., 1999; Reed, Kay, Finnel, Aquino, & Levy, 2016). 그러나 타인에게 금전을 사용하는 의도와 시간을 사용하는 의도에 내재된 심리적 비용이 다르다. 금전 사용 의도는 주로 자기중심적(self-focused)이며, 대체 가능한 자원이다(Vohs, Mead, & Goode, 2008). 금전 사용의 경우와는 달리 시간은 유한하고, 고유하여 특수한 기회비용을 가지는 자원으로(Reed & Aquino, 2003),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혐오(aversion)를 보이지만, 봉사활동 등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는 혐오를 적게 보고하였다(Reed et al.,

2016). 또한, 돈에 비해 시간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며 (Mogilner & Aaker, 2009; Reed, Aquino, & Levy, 2007), 금전의 사용보다 시간을 사용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ter & Gilovich, 2010). 더불어, 오민정 등(2017)에서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금전 사용보다 시간 사용을 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는 사람의 지각과 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Leclerc, Schmitt, & Dubb, 1995; Mogilner, 2010; Okada & Hoch, 2004), 시간 사용 의도와 금전 사용 의도 각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측정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가 자신의 금전과 시간을 가까운 타인과 먼 타인에게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것이다.

3. 소속 욕구

사회과학자들은 소속 욕구(need to belong; NTB)가 사람들의 안녕감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하였다(Baumeister & Leary, 1995; DeWall, Deckman, Pond, & Bonser, 2011). 소속 욕구는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Fiske & Taylor, 2013). 사람들은 적어도 소수의 사람과라도 관계를 맺기를 바라며, 소속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위협이 될 수 있다(House, Landis, & Umberson, 1988).

그렇다면 소속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사람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욕구가 좌절될 때 심리적 위협을 느낄 수 있다. Murray(1938)는 사람들이 자율, 놀이, 이해, 성취를 포함한 20가지의 기본적 욕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중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소속 욕구’를 높은 위치에 두었다. 또한, Shneidman(1998)의 욕구 체계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적 자아를 가지며, 주요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나 관심이 결핍되거나 좌절스러울 때, 그리고 자신이 타인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고 여겨질 때 매우 큰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하였다(Joiner, Brown, & Wingate, 2005; Van Orden, Witte, Cukrowicz, Braithwaite, Selby, & Joiner Jr, 2010).

위와 같은 심리적 고통과 더불어, 사회적 연결이 부족한 사람들은 심박 출력(cardiac output)과 작은 동맥들이 수축하며 생기는 총 말초 저항(total peripheral Resistance)의 상승으로 혈압이 높아져 혈관 손상이나 심장의 운동이 과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Hawkley, Burleson, Berntson & Cacioppo, 2003), 죽음의 위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ouse et al., 1988). 그리고 소속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조절 능력의 손상을 보였다(Åkerlind & Hörnquist, 1992). 예를 들어, 알코올과 마약의 남용, 자살과 같이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외로움을 느끼는 젊은 사람들은 주어진 업무에 비해 주관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Cacioppo, Hughes, Waite, Hawkley, & Thisted, 2006), 외로운 중년의 사람들은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운동을 적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kman & Syme, 1979; 존 카치오포, 윌리엄 패트릭, 2013에서 재인용). 그리고 낮 동안의 피곤함과 외로움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외로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사람들이 수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기회복능력을 떨어뜨리며, 결과적으로 면역 체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Cacioppo, Hawkley & Berntson, 2003; Hawkley & Cacioppo, 2010; House et al., 1988). 이에 더하여 미래에 자신이 사회적으로 소속되지 않는 것을 상상하도록 하였을 때 연구 참가자들은 주의 집중이나 실행조절 능력과 관련된 뇌의 부위에서 비교적 낮은 활동을 보였으며, 불쾌함을 견디기 어

려워하는 등 낮은 자제력을 보였다(Baumeister et al., 2002; 2005).

더하여 사람들은 소속 욕구와 관련된 정보를 접할 때 자동적으로 소속된 집단과 관련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Perdue, Dovidio, Gurtman과 Taylor(1990)에서 사람들은 ‘우리’ 또는 ‘그들’과 관련된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스스로를 집단의 소속원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소속에 대한 기제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자극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예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겨루는 상대 집단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관찰되었다(Hastorf & Cantril, 1954; Fiske & Taylor, 2013에서 재인용). 사람들이 다수에게 동조하고자 하는 행동도 소속 욕구에서 파생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Wood, 2000). 즉,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가능한 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사고나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소속 욕구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함을 짐작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속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와 소속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이유를 사회과학자들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오랜 과거에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사람들은 타인과 연결될 필요가 있었다(Hamilton, 1971; Williams, 1966). 진화심리학자들은 생존을 위해 집단에 소속되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다른 구성원을 돕는 것이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Hamilton, 1971). 집단에 소속되는 것의 위와 같은 장점을,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아프리카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 암컷이 다른 암컷 무리에 소속될 때, 새끼의 생존율이 올라갔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속이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Cheney & Seyfarth, 2007). 인간들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타인과의 관

계에 소속되는 것이 개체의 생존을 위해 필요했으며(Williams, 1966), 그러므로 자신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유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가 나타났을 것이다(Dunbar & Shultz, 2007).

종합하면, 소속 욕구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욕구로서, 소속 욕구의 결핍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소속 욕구의 결핍에서 벗어나려는 동기와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는 것과 같이 타인과의 관계가 박탈될 경우, 사람들은 소속 욕구를 재충족시키는 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 사회적 거부, 소속 욕구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선행 연구에서 소속 욕구의 중요성을 밝혔고, 이를 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 거부나 사회적 배제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Maner et al., 2007; Twenge, Baumeister, DeWall, Ciarocco & Bartels, 2007; Twenge et al., 2001; Warburton, Williams, & Cairns, 2006). 사회적 관계의 손상은 개인의 생존에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의 손상에 대해 육체적 통증의 경우와 비슷한 대처방식을 사용하며,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킨다(MacDonald & Leary, 2005; Thornhill & Thornhill, 1991). 사회적 거부를 일시적으로 접했을 때는 정서적 고통의 강도가 강하지 않지만(DeWall & Baumeister, 2006), 사회적 거부를 만성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외로움, 소외감, 무기력감 등을 보였다(Williams & Nida, 2011). 일시적으로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통제감의 감소를 느끼며, 타인에게 공격성을 더 많

이 보였다(Warburton et al., 2006). 실험실 상황에서 사회적 거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덜 보였으며, 타인에게 부정적인 정서나 공격적인 행동을 더 보였다(Twenge, 2000; Twenge et al., 2001; 2007; Warburton et al., 2006).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부를 당한 사람들은 자선 기부를 덜 하였고, 타인에게 펜을 덜 나누어 주었으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덜 사용하는 등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거부가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Loveland et al., 2010; Maner et al., 2007; Mead, Baumeister, Stillman, Rawn, & Vohs, 2011; Vohs et al., 2008). 예를 들어, 사람들은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후 앞으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Maner et al., 2007). 그리고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소속감을 강화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자 소비를 하였으며(Mead et al. 2001; Vohs et al., 2008),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사회와의 재연결을 시도하는 특징을 보였다(Loveland et al., 2010). 즉, 사회적 거부는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한편 증가시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거부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부가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민정, 박기경과 박정철(2017)은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지 않은 연구참가자들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자 시간과 금전의 기부 의도를 보인 것에 반해,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연구참가자들은 먼 타인에게 소속되고자 하며, 기부를 하는 대상자를 가깝게 여기고자 하여 시간 기부의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더 많이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적 거부의 경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속 욕구를 다시 충족시키려는 동기를 가지

게 하며, 이와 같은 동기에 의해 자신의 시간을 친사회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Pavey, Greitemeyer와 Sparks(2011)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론은 사람들이 연결성, 자율성, 능력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가진다고 제안하였다. 세 욕구 중 사람들에게 연결성에 대한 욕구가 점화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원봉사나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 많이 드러냈다(Pavey et al., 2011). 즉, 사회적 거부의 경험은 소속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를 일으키며, 이에 따른 행동 및 의도가 유발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부가 소속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타인의 무시나 사회적 거부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수용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보다 소속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을 보고하였다(Giesen & Echterhoff, 2018). 직접적으로 타인의 무시나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타인의 무시나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도 소속 욕구를 위협받는 것이 관찰되었다(Coyne, Nelson, Robinson, & Gundersen, 2011).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무시나 사회적 거부를 당한 사람들은 소속감을 높이고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를 보였다(Vohs et al., 2008). 더하여, Williams, Cheung과 Choi(2000)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다른 사람로부터 수용된 사람에 비해 소속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수용된 사람들보다 사회적인 관계에 더 잘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더하여 사회적 거부 경험으로 인해 불안을 느낀 대학생들은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소속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Bäck, Bäck, & Knapton,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소속 욕구의 위협을 느끼며, 그로 인해 소속 욕구를 다시 충족시키려는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회적 거부가 소속 욕구를 매개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높이는 것은 Molden과 Maner(2013)의 사회 재연결 가설(social reconnection hypothesis)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 재연결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게 되면 지금의 단절된 관계를 벗어나 소속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동과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행동과 태도로 타인의 환심을 사려는 (ingratiating) 사회적 행동, 사회적 정보에 대한 민감성 및 사회적 연결을 확장하려는 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사회 연결을 확장시키고자 나타나는 친사회적 행동 의도는 사회적 거부를 제공한 당사자에게는 보이지 어려우며, 호의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보이게 된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이 소속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사회와의 재연결을 시도한다는 점을 밝혔다(Gardner et al., 2000; Maner et al., 2007). 이를 고려할 때,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다시 사회의 구성원들과 연결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였을 때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이 다시 타인과 연결되고 소속감을 느낄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종합하면,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며, 소속 욕구가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 간의 관계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동일하게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였더라도 소속 욕구의 변화 수준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었다(김애리, 손영우, 임혜빈, 2014). 그렇다면 사회적 거부와 소속 욕구를 매개로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거부와 소속 욕구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이 사회적 거부와 소속 욕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인간이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자기존중감의 동기로 인한 행동일 수 있다는 점(권석만, 2008; Leary, 2005)에서 자기존중감이 조절효과를 보일 것으로 짐작 가능하다. 자기존중감은 소속(belonging), 능력감(feeling competence) 및 가치감(feeling worthwhile)으로 구성되며,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인정받고 수용되거나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으며 형성된다(이영애, 1989; Pillemer, Ivecevic, Gooze, & Collins, 2007; Vignoles, Regalia, Golledge, & Scabini, 2006). 그러므로 개인의 자기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거부 경험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하여,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거부로부터 오는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이에 따라 소속 욕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가 소속 욕구를 매개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5.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self-esteem)은 사람들이 객체로서 그들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하는가를 의미하며,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다(Baumeister et al., 2003; Rosenberg, 1965). 또한, 자기존중감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험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스스로가 은연 중에 자신에게 내린 모든 평가를 포함한다(최석란, 이경희, 이상화, 정정옥, 2003; Kernis, 2003; Mussen, 1984; Smith & Petty, 1995). 자기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린 것과 다른 사람의 평가를 내면

화하는 것을 통해 형성되며(이선미, 2017; Greenier, Kernis & Waschull, 1995),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민정, 이동귀, 2007). 자기존중감은 사람의 자아실현 및 자기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Harter & Pike, 1984), 사람들의 정서, 태도, 가치관, 인지, 동기, 성격 등 전반적인 심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조대봉, 1990).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존중감이 가지는 위와 같이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자기존중감의 수준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교적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많은 확신을 보이며(Baumgardner, 1991; Campbell, 1990), 자신의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서적 고통을 덜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2010; Brown & Marshall, 2001). 그리고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위협받을 때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Steele, Spencer & Lynch, 1993). 또한, 높은 자기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을 지니고, 타인의 평가에 위축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경훈, 2010; 강란혜, 2011). 이에 더하여, 높은 자기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자신을 믿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을 대할 때 정직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진다(Branden, 1969).

반면, 비교적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나, 사건에 더 크게 반응하고,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ernis, Grannemann & Barclay, 1989). 그리고 자기존중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와 열등감을 보이며, 과도하게 스스로를 의식하거나 자신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자신

이 존중받거나 수용된다는 것을 느끼기 어려워하고, 실패 시 부정 정서를 강렬하게 느끼며, 본인의 능력을 의심하는 태도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고려옥, 2005; Coopersmith, 1967). 또한,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는 등 타인과 적절하게 파괴적인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연, 2008; 이민선, 2011).

6. 사회적 거부와 소속 욕구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역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애착과 소속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연결을 위한 보상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Leary, Twenge, & Quinlivan, 2006; DeWall, Twenge, Gitter, & Baumeister, 2009). 이와 같은 애착과 소속에 대한 관심과 행동에 나타난 차이가 사람들의 자기존중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보이는 특징이 달라진다는 것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자신의 재능에 초점을 둔 사회 비교를 하지만, 자기존중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자 사회 비교 상황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인다(Baumeister, Tice, & Hutton, 1989). 이에 따라, 자기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취하는 초점과 행동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타인의 평가 또는 자신의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나타난다. 이는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며, 자신 내적 상태나 타인의 행동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므로

자신의 정서에 집중하는 특징을 가진다(Brown & Marshall, 2001).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거부를 경험했을 때,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에 덜 민감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Williams(2009)는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였을 때 커다란 고통을 느끼며,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높은 자기존중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였을 때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더 긍정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적게 보였다는 것에서 기인하였다. 또한, 높은 자기존중감이 사회적 거부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나타났다(Nezlek et al., 2007). 실제로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의 자기존중감을 높게 점화하였을 때 친밀한 사람들을 물질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줄고, 친구를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iang, Zhang, Ke, Hawk, & Qiu, 2015). 즉, 자기존중감을 상승시키는 것이 사회적 거부에서 오는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데,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것임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가 소속 욕구를 매개하여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거부와 소속 요구 간의 관계를 자기존중감이 조절하는 매개된 조절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적 거부 경험이 소속 욕구를 높이며, 소속 욕구가 상승함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 의도가 증가할 것인데, 여기서 사회적 거부 경험이 소속 욕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개인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III. 연구 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1.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부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소속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가설 1. 사회적 거부 경험을 떠올렸을 때 자기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소속 욕구가 더 강해질 것이다.

연구문제 2. 사회적 거부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소속 욕구가 매개할 것인가?

가설 2-1. 사회적 거부를 떠올렸을 때 소속 욕구가 더 강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타인을 위해 더 많은 금전 사용 의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2. 사회적 거부를 떠올렸을 때 소속 욕구가 더 강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타인을 위해 더 많은 시간 사용 의도를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3.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부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소속 욕구를 매개로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인가?

가설 3-1. 사회적 거부를 떠올렸을 때, 자기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소속 욕구가 더 강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타인을 위해 더 많은 금전 사용 의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3-2. 사회적 거부를 떠올렸을 때, 자기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소속 욕구가 더 강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타인을 위해 더 많은 시간 사용 의도를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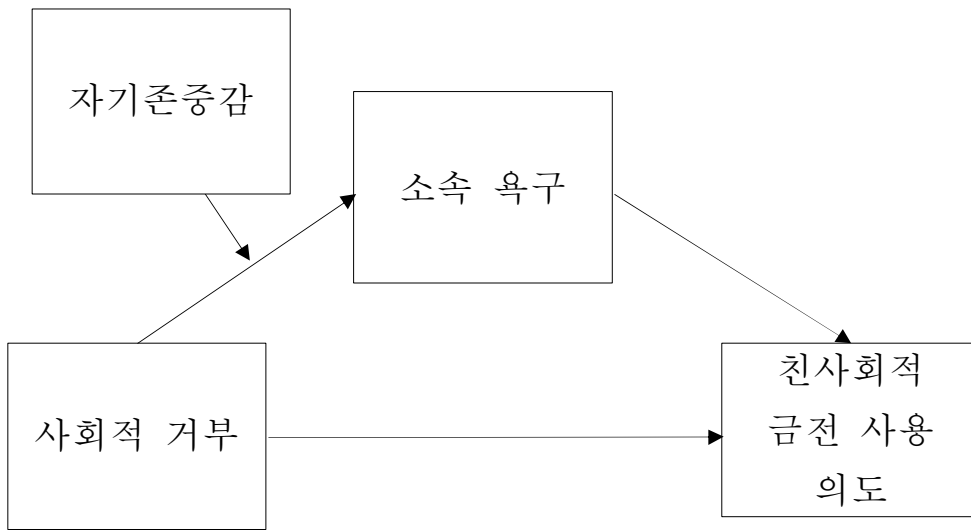


그림 1. 금전 사용 의도와 관련된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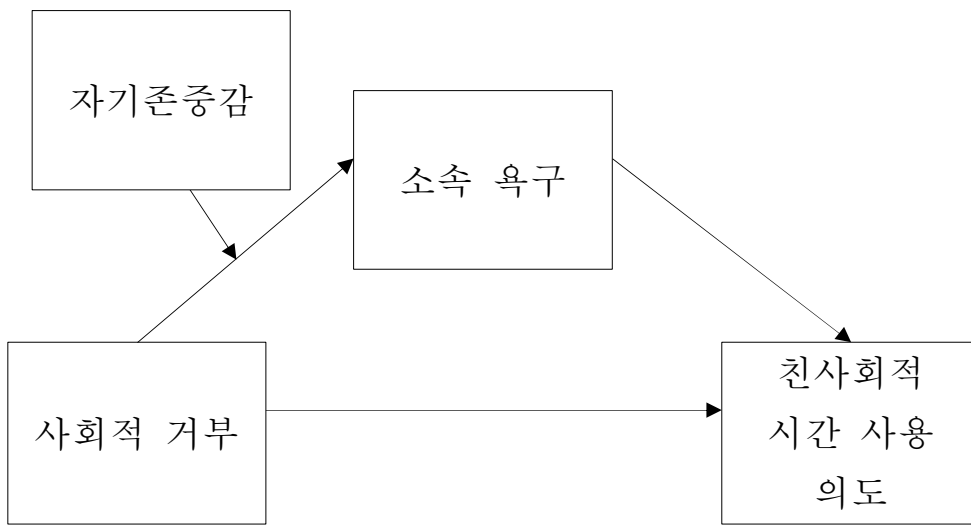


그림 2. 시간 사용 의도와 관련된 연구모형

IV. 연구 방법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금전 사용 의도를 측정하기에 자신의 돈을 활용하여 기부를 할 수 있는 직장인을 연구 참가자로 모집하였다. 연구를 완료한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로 현금 2000원의 온라인 적립금이 지급되었다.¹⁾ 총 339명의 연구 참가자가 참여했으며, 연구 참가자들은 사회적 거부 조건과 맛있는 음식 조건에 무선탈당 되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연구 참가자들은 사회적 거부 경험에 대한 글쓰기 과제와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경험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조건의 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한 사람들의 자료만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안내 지시문을 잘못 이해한 34명, 일관적인 응답을 한 9명의 연구 참가자를 제외하여 총 43명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금전 사용과 시간 사용의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대한 조절된 매개 모형을 검증하는데 총 29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금전 사용 의도와 관련된 모형의 분석에 156명, 시간 사용 의도와 관련된 모형의 분석에 140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금전 사용 의도의 모형에서 사회적 거부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 중 여성은 45명, 남성은 35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7.35세였다($SD=8.86$).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가 가장 많았으며(81.6%), 월 평균 가계 소득은 451만원 이상 550만원 이하로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18.8%). 사무직원을 직업이라고 응답

1) G*Power 3.1.9.2를 사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1, 검정력 .95, 예측변수를 7로 설정하여 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출하였을 때 최소 120명의 연구 참가자들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 사용의 친사회적 행동 의도와 시간 사용의 친사회적 행동 의도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총 240명의 표본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된 표본 수와 탈락율을 고려하여 300명 이상의 표본을 모집하였다.

한 연구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76.3%), 평균 7년 5개월 가량을 근무하였고, 사원급의 사람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31.6%). 연구 참가자의 10개의 사다리 층으로 측정된 주관적 경제적 지위의 평균은 4.76이었다($SD=1.80$). 맛있는 음식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 중 여성은 43명, 남성은 33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7.28세였다($SD=9.37$).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가 가장 많았으며(63.2%), 월 평균 가계 소득은 451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로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25.0%). 사무직원을 직업이라고 응답한 연구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75.0%), 평균 7년 9개월 가량을 근무하였고, 사원급의 사람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31.6%), 연구 참가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주관적 경제적 지위는 10개의 사다리 층 중 평균 4.97였다($SD=1.55$).

다음으로, 시간 사용 의도의 모형에서 사회적 거부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 중 여성은 36명, 남성은 30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8.12세였다($SD=9.75$).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가 가장 많았으며(63.6%), 월 평균 가계 소득은 151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및 351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로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16.7%). 사무직원을 직업이라고 응답한 연구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71.2%), 평균 7년 5개월 가량을 근무하였고, 사원급의 사람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30.3%). 연구 참가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주관적 경제적 지위는 10개의 사다리 층 중 평균 4.73였다($SD=1.58$). 맛있는 음식 조건에는 여성 47명, 남성 27명이 참가하였다. 연구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38.24세였고($SD=8.37$),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가 가장 많았으며(54.1%), 월 평균 가계 소득은 351만원 이상 451만원 이하 또는 651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로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16.2%). 사무직원을 직업이라고 응답한 연구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77.0%), 평균 8년 3개월 가량을 근무하였다. 사원급의 사람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31.1%), 연구 참가자의 주관적 경제적 지위는 10개의 사다리 층 중 평균 4.84였다($SD=1.76$).

2. 측정 도구

실험 조건인 사회적 거부 조건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이 실제로 겪었던 사회적 거부 경험을 회상하도록 하였으며, 통제 조건인 맛있는 음식 조건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이 과거에 먹었던 매우 맛이 없었던 음식에 대한 경험을 회상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거부 조건과 맛있는 음식 조건은 부정적인 경험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사회적 거부 조건이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경험인 것에 비해 맛있는 음식 조건은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부정적인 정서를 덜 느끼는 경험이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사건을 회상하는 방식을 사회적 거부 조건 및 맛있는 음식 조건에 사용하는 것으로, 연구 조건 간에 조작에 의해 유발된 정서 유인가의 차가 이어지는 측정에서 차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적 조작이 사회적 거부를 점화시켰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작 점검을 실시하였다.

1) 조작 점검

사회적 거부 경험은 사회적 고통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Williams, 2009), Leary(2015)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가 낮거나 잠재적인 위협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 상처받은 느낌, 당황스러움을 느낄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관련 정서 단어인 ‘마음이 아픈’, ‘당황스러운’을 조작점검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더하여, 앞서 두 문항이 사회적 거부와 관련된 부적 정서이기에, 정서가의 균형을 맞추고자 긍정 정서를 추가하였다. 사회적 거부와 무관한 ‘마음이 따뜻한’, ‘인정어린 마음이 드는’의 긍정 정서 두 문항을 본 연구의 조작 점검에 포함하였다.

사회적 거부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은 사회적 고통인

‘마음이 아픈’과 ‘당황스러운’을, 맛있는 음식을 섭취한 경험을 회상한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보다 더 많이 느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더불어, 사회적 거부와 무관한 정적 정서의 경우, 사회적 거부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과 맛있는 음식의 섭취 경험을 회상한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조건 별 글쓰기 과제에 기술한 사회적 거부 경험 및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경험이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일상적인지 및 얼마나 생생하게 떠올렸는지를 알아보았다. 떠올린 경험 간에 강렬함, 일상성 및 생생함의 차이가 종속 변수에 미칠 영향을 통제하고자 조건 간 강렬함, 일상성, 및 생생함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조건 별 떠올린 경험에 차이가 뚜렷하다면, 이를 통제하고자 ‘귀하께서 경험하신 일은 강렬했다.’ ‘귀하께서 경험하신 일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 및 ‘귀하께서 경험하신 일이 생생하게 다시 떠올랐다’를 조작점검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모든 조작 점검 문항에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2) 무관과제

본 연구에서 측정되는 변수들 간의 관계가 가까워 연구 참가자들이 연구 목적을 사전에 짐작할 가능성이 있고, 친사회적 행동을 다루는 연구이므로 연구 참가자들의 응답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연구의 목적을 추론하기 어렵게 하기 위하여 측정 도구들 사이에 무관 과제(filler task)를 삽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무관 과제는 Horn(2001)에 소개된 Would-You-Rather(WYR)의 딜레마들을 사용하여 2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가지를 고르는 과제로서, 내용이 중립적이

어서 다른 정서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West, Magee, Gordon, & Gullett, 2014). 17개의 문항 중 연구 참가자들이 선택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2가지를 제외하고 총 1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9개의 문항은 사회적 거부 점화를 위한 절차 후에, 6개의 문항은 소속 욕구 측정 후에 제시하였다

3) 자기존중감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안한 로젠버그 자기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와 같이 전반적인 자기존중감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와 이상민(2009)의 제안에 따라 8번 문항을 ‘나는 나를 더 존중하지 못해 안타깝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기존중감을 가진 것으로 측정된다. 이주희와 김정규(2015)의 연구에서 관찰된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사회적 거부 조건, 맛있는 음식 조건 및 전체에서 각각 .85와 .87, 그리고 .86이었다.

4) 소속 욕구

소속 욕구는 Leary, Kelly, Cottrell과 Schreindorfer(2005)가 개발한 척도를 이승연, 송경희와 안소현(2015)이 이중 역번역 과정에 따라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며, 연구 참가자들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 소속 욕구의 점수가 높을수록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이승연, 송경희, 안소현(2015)의 연구에서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사회적 거부 조건에서 .76이었고, 맛있는 음식 조건에서 .74였으며, 전체에서 .77이었다.

5) 친사회적 행동 의도

신지은(2018)에서 친사회적 소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척도를 참고하여 금전 기부 의도와 시간 기부 의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신지은(2018)의 연구에서는, 평소에 얼마나 친사회적 소비를 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제시하는 네 가지의 항목에 연구 참가자들이 얼마만큼의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시되었던 네 가지 항목 가운데 '타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과 함께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항목에 기입한 금액을 합하여 친사회적 행동 의도의 지표로 간주하였다.

신지은(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식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윌돈 100만원이 주어진다면 '저축 및 투자', '자신을 위한 소비', '다른 사람을 위한 소비' 및 '사회에 환원'의 네 가지 항목에 얼마만큼을 할애할 것인지 응답하도록 하여 금전 기부 의도를 측정하였다. 시간 사용 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통계청(2014)의 생활시간조사의 시간 사용 분류에 따라 '개인 정비 및 휴식', '자기 개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및 '다른 사람들을 돕기'의 네 가지 항목에 24시간의 여유 시간을 얼마나 사용할지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6) 인구통계학적 특성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성별, 종교 및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 문항들을 인구통계학적 질문지에 포함시켰다(Piff, Kraus, Cote, Cheng, & Keltner, 2010).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에는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모두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주관적인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McArthur의 사다리를 사용하였다(Adler, Epel, Castellazzo, & Ickovic, 2000). 연구 참가자들은 소득 및 직업 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신이 공동체에서 10개의 사다리 층 중 어디에 속한다고 느끼는지 응답하였다.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가자들의 최종 학력과 가계 월 평균 총 소득, 직업 및 직급을 측정하였다(Piff et al., 2010). 또한, 연구 참가자가 평소에 갖는 여유시간이 타인을 위한 시간 사용 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 참가자들이 일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측정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하여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시작에 앞서 연구의 커버스토리가 담긴 연구 참가 동의서를 제시하고, 참가에 동의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직장인만을 연구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연구 첫 머리에서 응답자의 직업유무를 묻고,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은 연구 참여를 종료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가장 처음으로 연구 참가자들의 자기존중감 수준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가자들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거부를 당한 경험을 기술하는 실험 조건과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경험을 기술하는 통제 조건에 무선할당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Maner 등(2007)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사회적 거부의 조작을 받았다. 사회적 거부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거부를 한 사람의 이니셜과 함께 4-5문장으로 기술하도록 요청받았는데,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는 조건의 안내문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귀하께서 과거에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셨던 경험을 떠올려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귀하와 어떤 관계였으며, 그 사람이 귀하를 어떻게 거부하였는지 생각해보십시오. 거부를 당하던 때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5분 간 그 때의 경험을 생생하게 떠올려주십시오. 아래의 칸에 귀하를 거부한 사람의 이니셜을 적고, 그 때의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총 네다섯 문장으로 적어주십시오.”

통제 조건에서 연구 참가자들은 사회적 거부와 유사하게 부정적인 경험이지만, 타인과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건이 아닌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경험을 기술하도록 요청 받았다. 당시에 연구 참가자가 먹었던 음식의 이름과 이와 관련된 경험을 4-5문장으로 기술하도록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통제 조건에서의 지시문은 다음과 같았다.

“귀하께서 과거에 매우 맛있는 음식을 드셨던 경험을 떠올려주세요. 구체적으로, 그 음식이 무엇이었으며, 그 음식에서 어떤 맛이 났고, 어느 정도 맛이 없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매우 맛있는 음식을 먹던 때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5분 간 그 때의 경험을 생생하게 떠올려주세요. 아래의 칸에 그 음식의 이름을 적고, 그 때의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한 문장씩 총 네다섯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 조건별로 글쓰기를 완료한 뒤, 연구 조건에 따른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작 점검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이 실험 조건에서 사회적 거부로 인해 관계의 위협을 느끼며, ‘상처 받은 느낌’과 ‘당황스러움’을 보일 것(Leary, 2015; Twenge et al., 2007)으로 예상하여 이를 조작 점검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더하여, 조건 별로 작성한 경험을 연구 참가자가 얼마나 강렬하고 생생하게 떠올렸는지 측정하고, 각 경험이 연구 참가자에게 익숙한 경험인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후 무관과제를 실시하고, 연구 참가자들의 소속 욕구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무관과제를 시행하고, 연구 참가자의 친사회적 행동 의도와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참가자의 의견을 물어본 후, 연구를 종료하였다. 본 연구에는 대략 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의 목적과 결과 및 사후 설명이 제시된 내용을 연구 참가자들에게서 제공 받은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4. 분석 방법

SPSS 25.0을 사용하여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상관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들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의 상관을 분석하여, 결과변수인 금전 사용 의도 및 시간 사용 의도와 상관 관계가 나타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분석에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거부 조건과 맛있는 음식 조건의 조작성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건 별 조작성 점검 문항의 차이를 검증하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Hayes, 2015). 먼저, 본 연구의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1번 모형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 Process Macro 4번 모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Process Macro 7번 모형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에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였다. 예측변수로 사회적 거부, 매개변수로 소속 욕구, 조절변수로 자기존중감을 투입하였으며, 결과변수로 시간 사용 의도와 금전 사용 의도를 투입하였다. 결과변수인 금전 사용 의도의 응답은 0에서 100이었으며, 시간 사용 의도의 응답은 0에서 24였다. 두 결과변수의 응답은 매우 넓은 분포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결과변수의 값을 표준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를 순차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월효과로 인한 혼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변수의 측정 순서에 따른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Elmes, Kantowits와 Roediger III(2012)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결과변수인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를 연구 참가자들 간에 상쇄평형화하였다. 연구 결과, 금전 사용 의도를 측정한 후 시간 사용 의도를 측정하였을 때($n=156$),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42, p<.001$). 다음으로, 시간 사용 의도를 측정한 후 금전 사용 의도를 측정했을 때에도($n=140$),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r=.22, p<.01$). 이처럼 두 측정 순서에서 모두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으나, 상관계수의 크기는 두 측정 순서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1.96, p<.05$). 즉, 이 같은 상관계수의 차이를 통하여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 중 어느 것을 먼저 측정하는가에 따라 두 유형의 친사회적 행동 의도 관련 응답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먼저 측정된 유형의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종속변수로 간주하여, 금전 사용 의도에 대한 156명의 자료와 시간 사용 의도에 대한 140명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1. 사회적 거부 조작 점검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조건 별로 다른 글쓰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분석에 앞서, 연구 참가자들이 할당된 조건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특히 사회적 거부 경험을 적절하게

회상하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연구 조건에 걸맞은 내용으로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는지 살펴보았으며, 연구의 안내 지시문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과 하나의 번호로만 일관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을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거부 경험에 대한 글쓰기 과제가 실제로 사회적 거부와 관련된 정서를 불러 일으켰는지 통제 조건과 비교 검증하였다. 즉, 조작 점검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조건 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2에 제시하였다.

표 1.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건 간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한 응답 차이 검증 결과(N=156)

변수	조건	n	<i>M</i>	<i>SD</i>	<i>t</i>
거부 관련 부적 정서	사회적 거부	80	3.18	.95	2.18**
	맛없는 음식	76	2.78	.81	
거부 무관 정적 정서	사회적 거부	80	3.03	.92	-1.27
	맛없는 음식	76	3.20	.83	

p* < .05, *p* < .01, ****p* < .001

표 2. 시간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건 간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한 응답 차이 검증 결과(N=140)

변수	조건	n	<i>M</i>	<i>SD</i>	<i>t</i>
거부 관련 부적 정서	사회적 거부	66	3.08	.87	2.75**
	맛없는 음식	74	2.69	.79	
거부 무관 정적 정서	사회적 거부	66	3.06	.85	-1.69
	맛없는 음식	74	3.30	.81	

p* < .05, *p* < .01, ****p* < .001

본 연구에서는 금전 사용 의도 모형과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 각각 사회적 거부 경험에 대한 글쓰기를 한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이 맛없는 음식을 먹었던 경험에 대한 글쓰기를 한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보다 사회적 거부와 관련된 부적 정서인 ‘마음이 아픈’, ‘당황스러운’을 더 많이 보고할 것이라고 예상하

였다. 그러나 사회적 거부와 무관한 정적 정서인 ‘마음이 따뜻한’, ‘인정 어린 마음이 드는’을 느낀 정도에서는 조건 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먼저, 금전 사용 의도 모형과 시간 사용 의도 모형 각각에서 사회적 거부 관련 정서들과 사회적 거부 무관 정서들 사이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마음이 아픈’과 ‘당황스러운’ 정도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51, p<.001$), ‘마음이 따뜻한’과 ‘인정 어린 마음이 드는’ 정도 역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76, p<.001$).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도 ‘마음이 아픈’과 ‘당황스러운’ 정도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51, p<.001$), ‘마음이 따뜻한’과 ‘인정 어린 마음이 드는’ 정도 또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74, p<.001$). 이와 같이 금전 사용 의도 모형과 시간 사용 의도 모형 모두에서 ‘마음이 아픈’과 ‘당황스러운’ 사이에,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과 ‘인정 어린 마음이 드는’ 사이에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으므로, ‘마음이 아픈’과 ‘당황스러운’ 정도를 평균한 값(이하 ‘거부 관련 부적 정서’)과 ‘마음이 따뜻한’과 ‘인정 어린 마음이 드는’ 정도를 평균한 값(이하 ‘거부 무관 정적 정서’)이 조건 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거부 관련 부적 정서는 사회적 거부 조건($M=3.18, SD=0.95$)에서 맛없는 음식 조건($M=2.78, SD=.81$)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t(154)=2.73, p<.01$. 거부 무관 정적 정서는 사회적 거부 조건($M=3.06, SD=.92$)과 맛없는 음식 조건($M=3.20, SD=.83$)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54)=-1.27, p=.205$. 그리고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도 거부 관련 부적 정서는 사회적 거부 조건($M=3.08, SD=.87$)에서 맛없는 음식 조건($M=2.69, SD=.79$)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t(138)=2.75, p<.01$. 더불어, 거부 무관 정적 정서는 사회적 거부 조건($M=3.06, SD=.85$)과 맛없는 음식 조건($M=3.30, SD=.81$)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t(138)=-1.69, p=.094$. 요약하면, 금전 사용 의도 모형 및 시간 사용 의도 모형 모두에서, 예

표 3.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건 간 강렬함, 일상성, 생생함 문항에 대한 응답 차이 검증 결과(N=156)

변수	조건	n	M	SD	t
강렬함	사회적 거부	80	3.70	.89	.40
	맛없는 음식	76	3.64	.83	
일상성	사회적 거부	80	2.11	.90	-3.25**
	맛없는 음식	76	2.61	.99	
생생함	사회적 거부	80	3.60	.89	-.14
	맛없는 음식	76	3.62	.80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건 간 강렬함, 일상성, 생생함 문항에 대한 응답 차이 검증 결과(N=140)

변수	조건	n	M	SD	t
강렬함	사회적 거부	66	3.73	.76	.59
	맛없는 음식	74	3.65	.82	
일상성	사회적 거부	66	2.48	1.06	-.58
	맛없는 음식	74	2.58	.91	
생생함	사회적 거부	66	3.45	.81	-.46
	맛없는 음식	74	3.51	.73	

* $p < .05$, ** $p < .01$, *** $p < .001$

상과 같이 맛없는 음식 조건에 비하여 사회적 거부 조건에서 거부 관련 부정 정서를 유의하게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부 무관 정적 정서에서는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거부를 당하거나 맛없는 음식을 먹었던 경험이 연구 참가자들에게 어느 정도 강렬한 경험이었는지, 어느 정도 일상적인 경험이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경험을 연구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었는지 측정하였다. 사회적 거부와 맛없는 음식 섭취는 모두 부정적인 경험이지만, 사회적으로 거부당한 경험은 맛없는 음식을 먹은 경험에 비해 더 강렬하고, 덜 일상적인 동시에 더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는 경험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적 거부 경험과 맛없는 음식 섭취 경험의 강렬함, 비일상성 및 회상의

용이성 수준을 측정하여 조건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경험의 강렬함, 비일상성 및 경험 회상의 용이성 수준을 조건 간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4에 제시하였다.

먼저,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사회적 거부 조건($M=3.70$, $SD=.89$)과 맛있는 음식 조건($M=3.64$, $SD=.83$) 간 경험의 강렬함 수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154)=.40$, $p=.689$. 그러나 일상성 수준에서 사회적 거부 조건($M=2.11$, $SD=.90$)과 맛있는 음식 조건($M=2.61$, $SD=.99$)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154)=-3.25$, $p<.01$. 마지막으로, 생생하게 회상된 정도에서 사회적 거부 조건($M=3.60$, $SD=.89$)과 맛있는 음식 조건($M=3.62$, $SD=.80$)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t(154)=-.14$, $p=.892$. 다음으로,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 경험의 강렬함 수준은 사회적 거부 조건($M=3.73$, $SD=.76$)과 맛있는 음식 조건($M=3.65$, $SD=.82$)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38)=.59$, $p=.557$. 더불어, 일상성 수준도 사회적 거부 조건($M=2.48$, $SD=1.06$)과 맛있는 음식 조건($M=2.58$, $SD=.91$)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38)=-.58$, $p=.563$.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부 조건($M=3.45$, $SD=.81$)과 맛있는 음식 조건($M=3.51$, $SD=.73$)에서 생생하게 회상된 정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138)=-.46$, $p=.650$. 요약하면, 금전 사용 의도 모형과 시간 사용 의도 모형 모두에서 사회적 거부 조건과 맛있는 음식 조건 간 경험의 강렬함 및 생생하게 회상된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는 두 조건 간 일상성수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연구 참가자들은 사회적 거부를 맛있는 음식 섭취보다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 대한 이후의 분석에서 경험의 일상성 수준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2.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 관계

본 연구 가설과 관련된 분석에 앞서,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 포함된 연구 참가자들과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 포함된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각각 표 5 및 표 6과 같다.

1)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관계

금전 사용 의도 모형과 주요 변수인 자기존중감, 소속 욕구 및 친사회적 행동 의도의 기술통계치를 사회적 거부 조건과 맛있는 음식 조건 별로 살펴보았다.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건 별 기술 통계치는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건 간 주요 변수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거부 조건과 맛있는 음식 조건 별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및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거부 조건에서 매개변수인 소속 욕구와 종속변수인 금전 사용 의도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06$, $p=.597$. 더불어, 종속변수인 금전 사용 의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종교, 주간 자유 시간, 최종 학력, 월 평균 가계 소득, 성별, 연령, 직업, 직급, 근무기간 및 주관적 경제적 지위는 금전 사용 의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p>.05$. 다음으로, 맛있는 음식 조건에서도 매개변수인 소속 욕구와 종속변수

인 금전 사용 의도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r=.18$, $p=.113$. 종속변수인 금전 사용 의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종교, 최종학력, 월 평균 가계 소득, 성별, 연령, 직업, 직급, 근무기간, 주관적 경제적 지위는 금전 사용 의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ps>.05$), 주간 자유 시간과 금전 사용 의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23$, $p<.05$.

둘째, 사회적 거부 조건에서 조절 변수인 자기존중감과 소속 욕구 및 금전 사용 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자기존중감은 소속 욕구($r=.10$, $p=.394$) 및 금전 사용 의도($r=-.03$, $p=.773$)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맛있는 음식 조건에서도 자기존중감은 소속 욕구($r=-.05$, $p=.699$) 및 금전 사용 의도($r=-.03$, $p=.482$)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5.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56)

특성	구분	수(명)	백분율(%)
조건	사회적 거부	80	51.3
	맛없는 음식	76	48.7
성별	남성	68	43.6
	여성	88	56.4
종교	유	65	41.7
	무	91	58.3
최종 학력	고등학교	10	6.4
	전문대학	22	14.1
	4년제 대학교	102	65.4
	대학원 석사	18	11.5
	대학원 박사	4	2.6
가계 월 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1	0.6
	151-250만원	11	7.1
	251-350만원	26	16.7
	351-450만원	19	12.2
	451-550만원	34	21.8

	551-650만원	18	11.5
	651-750만원	14	9.0
	751-850만원	8	5.1
	851만원 이상	22	14.1
	모름	3	1.9
현재 주관적 경제적 지위	1(하위)	2	1.3
	2	10	6.4
	3	26	16.7
	4	25	16.0
	5	35	22.4
	6	33	21.2
	7	15	9.6
	8	9	5.8
	9	1	0.6
		10(상위)	0
직업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0.6
	전문가	16	10.3
	기술공 및 준전문가	7	4.5
	사무직원	118	75.6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근로자	5	3.2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0	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6	3.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근로자	2	1.3
	단순노무직	1	0.6
직급	사원급	52	33.3
	대리급	39	25.0
	과장급	28	17.9
	차장급	16	10.3
	부장급 이상	13	8.3
	기타	8	5.1

표 6.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40)

특성	구분	수(명)	백분율(%)
조건	사회적 거부	66	47.1
	맛없는 음식	74	52.9
성별	남성	57	40.7
	여성	83	59.3
종교	유	49	35
	무	91	65
최종 학력	고등학교	13	9.3
	전문대학	22	15.7
	4년제 대학교	82	58.6
	대학원 석사	17	12.1
	대학원 박사	4	2.9
	기타	2	1.4
가계 월 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1	0.7
	151-250만원	7	5
	251-350만원	16	11.4
	351-450만원	20	14.3
	451-550만원	22	15.7
	551-650만원	16	11.4
	651-750만원	22	15.7
	751-850만원	14	1
	851만원 이상	20	14.3
	모름	2	1.4
현재 주관적 경제적 지위	1(하위)	2	1.4
	2	9	6.4
	3	25	17.9
	4	25	17.9
	5	29	20.7
	6	28	20.0
	7	15	10.7
	8	6	4.3

	9	1	0.7
	10(상위)	0	0
직업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	0
	전문가	21	15.0
	기술공 및 준전문가	8	5.7
	사무직원	104	74.3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근로자	5	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1	0.7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근로자	1	0.7
직급	사원급	43	30.7
	대리급	34	24.3
	과장급	31	22.1
	차장급	9	6.4
	부장급 이상	23	16.4
	기타	0	0

표 7. 금전 사용 의도 모형의 사회적 거부 조건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N=8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097	1											
3	-.033	.060	1										
4	.096	-.083	-.081	1									
5	.226*	-.110	-.165	.148	1								
6	.132	-.001	.108	.020	.060	1							
7	.231*	.115	-.042	-.211	.085	.357**	1						
8	.163	.001	.065	-.133	.124	-.074	.078	1					
9	.056	.074	.125	-.120	-.076	.084	-.024	-.363**	1				
10	-.154	-.142	-.026	.018	-.159	-.612***	-.190	-.141	.107	1			
11	.229*	-.045	-.138	.064	.122	.206	.029	-.431***	.535***	-.161	1		
12	-.003	.045	.061	-.155	-.179	-.022	.090	-.281*	.614***	.260*	.334**	1	
13	.317**	-.008	.007	-.106	.178	.268*	.291**	.052	.233*	-.118	.259*	.265*	1
M	3.54	3.28	20.85	1.61	26.06	4.83	5.40	1.56	37.35	4.03	2.48	77.76	4.76
SD	.54	.47	11.67	.50	23.75	.73	2.28	.50	8.86	1.10	1.49	74.32	7.80

주. 1=차기존종감, 2=소속 욕구, 3=금전 사용 의도, 4=종교유무, 5=주간 자유시간, 6=최종 학력, 7=월 평균 가계 소득, 8=성별, 9=연령, 10=직업, 11=직급, 12=근무연구, 13=주관적 경제적 지위

* $p < .05$, ** $p < .01$, *** $p < .001$

표 8. 금전 사용 의도 모형의 맛있는 음식 조건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N=7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045	1											
3	-.082	.183	1										
4	-.131	.057	-.141	1									
5	.164	.111	-.229	.136	1								
6	.071	.049	.091	-.157	.073	1							
7	.206	-.172	-.143	-.134	-.074	.057	1						
8	-.220	-.004	.102	.119	.097	-.156	.076	1					
9	.037	-.144	.159	-.255*	-.262*	-.119	.055	-.339**	1				
10	-.077	-.252*	-.146	.079	-.063	-.351**	.065	.059	.039	1			
11	.088	.001	-.070	-.152	-.178	.212	.182	-.514***	.584**	-.181	1		
12	.151	-.184	-.077	-.109	-.120	-.060	.355**	-.301**	.567**	.177	.449**	1	
13	.291*	-.043	.167	-.015	-.059	.093	.270*	.002	-.044	-.241*	.006	.116	1
M	3.56	3.25	15.84	1.55	27.22	4.97	5.43	1.57	37.28	3.89	2.54	81.36	4.97
SD	.59	.46	12.55	.50	19.13	.83	2.23	.50	9.37	1.15	1.52	75.52	1.55

1=자기존중감, 2=소득 욕구, 3=금전 사용 의도, 4=종교유무, 5=주간 자유시간, 6=최종 학력, 7=월 평균 가계 소득, 8=성별, 9=연령, 10=직업, 11=직급, 12=근무연수, 13=주관적 경제적 지위

* $p < .05$, ** $p < .01$, *** $p < .001$

표 9.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건 간 주요변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N*=156)

변수	조건	n	<i>M</i>	<i>SD</i>	<i>t</i>
자기존중감	사회적 거부	80	3.54	.54	-.14
	맛없는 음식	76	3.56	.59	
소속 욕구	사회적 거부	80	3.28	.47	.33
	맛없는 음식	76	3.25	.46	
금전 사용 의도	사회적 거부	80	15.98	8.98	3.10**
	맛없는 음식	76	11.54	8.87	

p*< .05, *p*< .01, ****p*< .001

2)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관계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사회적 거부 조건과 맛없는 음식 조건 별로 주요 변수인 자기존중감, 소속 욕구 및 친사회적 행동 의도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았다.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건 별 기술 통계치는 표 10과 표 1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건 간 주요 변수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거부 조건과 맛없는 음식 조건 별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및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0과 표 11에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사회적 거부 조건에서 매개변수인 소속 욕구와 종속변수인 시간 사용 의도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r=.19, p=.130$. 더불어, 종속변수인 시간 사용 의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시간 사용 의도와 종교, 주간 자유 시간, 최종 학력, 월 평균 가계 소득, 성별, 연령, 직업, 직급 및 근무기간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ps>.05$), 주관적 경

제적 지위는 시간 사용 의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0, p<.05$. 다음으로, 맛있는 음식 조건에서도 매개변수인 소속 욕구와 종속변수인 시간 사용 의도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19, p=.111$. 종속변수인 시간 사용 의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시간 사용 의도와 종교, 주간 자유 시간, 최종 학력, 월 평균 가계 소득, 성별, 연령, 직업, 근무기간 및 주관적 경제적 지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ps>.05$), 시간 사용 의도와 직급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2, p<.01$.

둘째, 사회적 거부 조건에서 조절 변수인 자기존중감과 소속 욕구 및 시간 사용 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자기존중감은 소속 욕구($r=.05, p=.669$) 및 시간 사용 의도($r=.09, p=.468$)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맛있는 음식 조건에서도 자기존중감은 소속 욕구($r=.13, p=.290$) 및 시간 사용 의도($r=.14, p=.235$)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10. 시간 사용 의도 모형의 사회적 거부 조건에서 주요 변수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관계 (N=6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054	1											
3	.091	.188	1										
4	-.099	-.038	-.268*	1									
5	.125	.078	-.128	.094	1								
6	.181	.012	.105	-.073	.154	1							
7	.251*	.015	.159	.014	.028	.030	1						
8	-.152	-.102	-.131	-.029	.183	.045	.100	1					
9	-.008	-.104	.200	-.076	-.299*	.090	.114	-.464**	1				
10	.131	.024	-.112	-.089	-.016	.064	.125	-.110	.247*	1			
11	.010	-.045	.224	.070	-.294*	.156	.123	-.596***	.626***	.091	1		
12	.040	-.080	-.038	-.017	-.159	-.226	.066	-.353**	.638**	.016	.451***	1	
13	.401**	.098	.301*	.015	-.146	.019	.114	-.371**	.195	.128	.265*	.082	1
M	3.62	3.29	8.82	1.65	28.62	4.97	5.61	1.55	38.12	3.68	2.58	89.02	4.73
SD	.57	.47	4.08	.48	24.91	.74	2.20	.50	9.75	.88	1.48	87.08	1.58

주: 1=저자존중감, 2=소속 욕구, 3=시간 사용 의도, 4=종교유무, 5=주간 자유시간, 6=최종 학력, 7= 월 평균 가계 소득, 8=성별, 9=연령, 10=직업, 11=직급, 12=근무연구, 13=주관적 경제적 지위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시간 사용 의도 모형의 맛있는 음식 조건에서 주요 변수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N=7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125	1											
3	.140	.187	1										
4	-.186	-.034	-.164	1									
5	-.225	-.128	-.205	.001	1								
6	-.096	.026	.048	-.165	-.220	1							
7	.092	.121	-.005	.266*	-.061	.024	1						
8	-.059	-.069	-.208	.148	.178	-.117	.044	1					
9	.033	-.060	.121	-.145	-.100	.064	.015	-.258*	1				
10	.089	-.055	-.175	.125	.153	-.393**	-.204	-.068	-.002	1			
11	.131	-.026	.322**	-.042	-.146	.088	.072	-.427***	.380**	-.127	1		
12	.187	.062	.083	-.095	-.153	-.179	.122	-.282*	.686**	.084	.350**	1	
13	.461**	.246*	.037	-.165	-.291*	-.010	.161	-.215	.100	-.032	.321**	.277*	1
M	3.48	3.28	8.31	1.65	23.07	4.80	6.01	1.64	38.24	3.77	2.50	99.96	4.84
SD	.60	.50	4.16	.48	20.97	1.09	2.18	.49	8.37	.92	1.36	94.92	1.76

주: 1=자기존중감, 2=소속 유구, 3=시간 사용 의도, 4=종교유무, 5=주간 자유시간, 6=최종 학력, 7=월 평균 가계 소득, 8=성별, 9=연령, 10=직업, 11=직급, 12=근무연수, 13=주관적 경제적 지위

* $p < .05$, ** $p < .01$, *** $p < .001$

표 12. 시간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건 간 주요변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N=140)

변수	조건	n	M	SD	t
자기존중감	사회적 거부	66	3.62	.57	1.45
	맛없는 음식	74	3.48	.60	
소속 욕구	사회적 거부	66	3.29	.47	.05
	맛없는 음식	74	3.28	.50	
시간 사용 의도	사회적 거부	66	8.82	4.08	.73
	맛없는 음식	74	8.31	4.16	

* $p < .05$, ** $p < .01$, *** $p < .001$

3.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속 욕구와 자기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가 소속 욕구를 거쳐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관계를 자기존중감이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Hayes(2015)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7 변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순서 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측정했는가에 따라 연구 참가자들의 응답이 달라졌던 것으로 나타나,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 중 먼저 응답한 변수를 결과변수로 간주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로 나누어 두 개의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각 모형에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를 결과변수로 투입하였다.

금전 사용 의도를 결과변수로 하는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에서 금전 사용 의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주간 여유 시간($r = -.23$, $p < .05$)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0만원 중 다른 사람을 위한 소비에 사용하고자 하는 액수와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액수를 합산한 값이 친사회적 금전 사용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회에 환원하는 데 100만원 중 0원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가 156명 중 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에 전혀 환원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연구 참가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을 위한 소비에 사용하고자 하는 액수만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더불어, 사회에 전혀 환원하지 않고자 했던 연구 참가자들과 주어진 100만원 중 일부라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던 연구참가자들 사이에 소비 성향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Zhong, Lijenquist, & Cain, 2009), 사회에 환원 유무로 더미 코딩하여 분석에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이에 더하여, 조작점검에서 사회적 거부 조건과 맛있는 음식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귀하께서 경험하신 일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에 대한 응답을 금전 사용 의도의 모형에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시간 사용 의도를 결과변수로 하는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시간 사용 의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종교($r=-.27, p<.05$), 성별($r=-.18, p<.05$)과 직급($r=.32, p<.01$)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한편, 연구 참가자들은 금전 사용 의도에 0에서 100으로 응답을 하였으며, 시간 사용 의도는 0에서 24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방법으로 인하여 결과변수의 값이 넓은 범위에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전 사용 의도 및 시간 사용 의도를 표준화하여 결과변수로 투입하였다.

1) 사회적 거부와 소속 욕구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사회적 거부와 소속 욕구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즉, 사회적 거부가 자기존중감과 상호작용하여 소속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Hayes(2015)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통하여 결과변수 별로 조절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표 14와 같았다.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B=-.12, p=.370$),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도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B=.08, p=.582$).

표 13.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N=156$)

	Coefficient(B)	SE	t	p
Intercept(Constant)	2.502	.793	3.155**	.002
조건 (X)	.397	.482	.823	.412
자기존중감 (M)	.219	.219	.997	.320
X * M	-.121	.134	-.900	.370
주간 여유 시간	-.001	.002	-.264	.792
사회에 환원 유무	.019	.077	.247	.806
경험의 일상성	.017	.043	.388	.698

* $p < .05$, ** $p < .01$, *** $p < .001$

표 14.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N=140$)

	Coefficient(B)	SE	t	p
Intercept(Constant)	3.959	.957	4.138***	.000
조건 (X)	-.266	.518	-.513	.609
자기존중감(M)	-.053	.236	-.224	.823
X * M	.080	.144	.552	.582
종교	-.056	.089	-.287	.775
성별	-1.400	.102	-1.374	.172
직급	-.023	.038	-.601	.549

* $p < .05$, ** $p < .01$, *** $p < .001$

2)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의 관계에서 소속 욕구의 매개효과

2-1) 사회적 거부와 금전 사용 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속 욕구의 매개효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거부가 매개변수인 소속 욕구를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종속변수인 금전 사용 의도를 높이는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를 통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았다.

표 15. 금전 사용 의도의 모형에서 매개효과 검증 결과(N=140)

	Effect	SE	t	p
종속변수: 소속 욕구				
조건 (X)	-.026	.078	-.337	.737
주간 여유 시간	-.001	.001	-.913	.363
사회에 환원 유무	.035	.077	.455	.650
경험의 일상성	.011	.041	.268	.789
종속 변수: 금전 사용 의도				
조건 (X)	-.485	.158	-3.081**	.003
소속 욕구 (M)	.361	.165	2.192*	.030
주간 여유 시간	-.002	.001	-1.440	.152
사회에 환원 유무	.303	.157	1.930	.056
경험의 일상성	.090	.082	1.094	.276

표 16. 금전 사용 의도의 모형에서 간접효과 검증 결과(N=140)

	Effect	SE	LLCI	ULCI
Bootstrap	-.010	.031	-.084	.048

표 16에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적 거부가 소속 욕구에 미치는 영향($B=-.03$,

$SE=.08$)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거부가 금전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B=-.49, SE=.16, t=-3.01, p<.01$)과 소속 욕구가 금전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B=.36, SE=.17, t=-2.19, p<.05$)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사회적 거부와 시간 사용 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속 욕구의 매개효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거부와 매개변수인 소속 욕구를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종속변수인 시간 사용 의도를 높이는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를 통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았다.

표 17. 시간 사용 의도의 모형에서 매개효과 검증 결과($N=156$)

	Effect	SE	t	p
종속변수: 소속 욕구				
조건 (X)	-.005	.083	-.066	.948
종교	-.026	.086	-.299	.765
성별	-.133	.098	-1.362	.176
직급	-.036	.034	-1.048	.297
종속 변수: 시간 사용 의도				
조건 (X)	-.108	.159	-.683	.496
소속 욕구 (M)	.394	.166	2.379*	.019
종교	-.437	.166	-2.636**	.001
성별	.007	.189	.037	.971
직급	.202	.066	3.070	.003

표 18에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적 거부와 소속 욕구에 미치는 영향($B=-.01, p=.948$)과 시간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B=-.11, p=.497$)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속 욕구가 시간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B=.39, SE=.17, t=-2.38, p<.05$)은 유의하였다.

표 18. 시간 사용 의도의 모형에서 간접효과 검증 결과(N=156)

	Effect	SE	LLCI	ULCI
Bootstrap	.002	.034	-.069	.075

3)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속 욕구와 자기 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효과와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이를 합한 모형인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SPSS의 PROCESS macro model 7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인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이형권, 2015).

$$\begin{aligned}
 M &= i_1 + a_1X + a_2W + a_3XW + e_M \\
 &= i_1 + (a_1 + a_3W)X + a_2W + e_M \quad (1)
 \end{aligned}$$

$$\begin{aligned}
 Y &= i_2 + c_1X + c_2XW + bM + e_Y \\
 &= i_2 + (c_1 + c_2W)X + bM + e_Y \quad (2)
 \end{aligned}$$

위의 식에서 X (독립변수)는 사회적 거부이고 M (매개변수)은 소속 욕구이며, W (조절변수)는 자기존중감, Y (종속변수)는 친사회적 행동 의도인 금전 사용 의도 및 시간 사용 의도이다. 위 식 (1)과 식 (2)에서 조건부 간접효과의 크기 (ω)는 X 가 M 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효과($\theta_{X \rightarrow M} = a_1 + a_3W$)와 M 이 Y 에 미치는 단순효과인 b 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omega = (a_1 + a_3W)b = a_1b + a_3bW \quad (3)$$

조건부 간접효과는 특정한 조절변수의 값에서 간접효과의 크기를 의미한다 (Hayes, 2015).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조절된 매개지수를 통하여 판단한다 (Hayes, 2015). 식 3의 W 계수인 a_3b 는 이러한 조절된 매개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 각각을 결과변수로 하는 모형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3-1) 사회적 거부와 금전 사용 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속 욕구와 자기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본 연구 모형 중 하나인 금전 사용 의도를 결과변수로 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9에 제시하였다.

표 19.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N=156)

	Coefficient (B)	SE	t	p
종속변수: 소속 욕구				
조건 (X)	.370	.482	.823	.412
자기존중감 (W)	.219	.219	.997	.320
X * W	-.121	.134	-.900	.370
주간 여유 시간	-.001	.002	-.264	.792
사회에 환원 유무	.019	.077	.247	.810
경험의 일상성	.017	.043	.388	.698
종속변수: 금전 사용 의도				
조건 (X)	-.485	.157	-3.081**	.003
소속 욕구 (M)	.375	.164	2.300*	.023
주간 여유 시간	-.007	.004	-1.927	.056
사회에 환원 유무	.253	.154	1.648	.102
경험의 일상성	.070	.082	.852	.396

표 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속 욕구가 증가할수록 금전 사용 의도를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CESS macro에 의하여 조절된 매개지수의 크기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다.

$$a_3b = -.11(-.69) = .08$$

더불어,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이러한 조절된 매개지수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a_3b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2) 사회적 거부와 시간 사용 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속 욕구와 자기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인 시간 사용 의도를 결과변수로 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20에 제시하였다.

표 20에서 소속 욕구가 시간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PROCESS macro에 의하여 조절된 매개지수의 크기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다.

$$a_3b = -.05(-.10) = .01$$

더불어,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이러한 조절된 매개지수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a_3b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절된 매

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0.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N=140)

	Coefficient (<i>B</i>)	SE	<i>t</i>	<i>p</i>
종속변수: 소속 욕구				
조건 (X)	-.269	.516	-.521	.603
자기존중감 (W)	-.054	.235	-.228	.820
X * W	-.054	.143	.558	.578
종교	-.011	.088	-.128	.899
성별	-.132	.099	-1.339	.183
직급	-.039	.034	-1.125	.262
종속변수: 시간 사용 의도				
조건 (X)	-.108	.159	-.683	.496
소속 욕구 (M)	.394	.166	2.379*	.019
종교	-.437	.166	-2.636**	.009
성별	.007	.189	-.037	.971
직급	-.202	.066	3.007*	.003

VI. 논의

1.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가 소속 욕구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소속 욕구의 증가가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증가시키는지 살펴보았다(즉, 소속 욕구의 매개효과). 또한,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거부가 소속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지 살펴보았다(즉,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분석을 결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로 나누어 측정하여, 각각을 결과 변수로 하는 두 개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SPSS PROCESS macro model 7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거부 경험이 시간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거부가 금전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즉,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경험을 떠올렸을 때에 비하여 사회적 거부 경험을 떠올렸을 때, 타인에게 금전이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려는 의도를 보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중, 금전 사용 의도와 관련된 가설만 지지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부가 소속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는 금전 사용 의도를 결과변수로 하는 모형과 시간 사용 의도를 결과변수로 하는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두 모형 모두에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거부가 매개변수인 소속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기존중감이 그 영향의 크기를 조절하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가 소속 욕구를 매개로 금전 사용 의도 및 시간 사용 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사회적 거부가 소속 욕구를 거쳐 금전 사용 의도 또는 시간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로 중 일부에서는 가설과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금전 사용 의도 모형 및 시간 사용 의도에서 소속 욕구를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타인을 위해 금전 및 시간을 많이 사용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거부 경험을 떠올린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경험을 떠올린 사람보다 타인을 위해 금전을 더 많이 사용하려 하였다. 즉, 금전 사용 의도 모형에서는 사회적 거부 경험을 떠올린 사람들이 타인에게 더 많이 금전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보이며, 더 많은 소속 욕구를 보이는 것이 타인에게 금전을 더 많이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시간 사용 의도 모형에서는 소속 욕구를 더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려는 의도를 보일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목표인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속 욕구의 매개효과를 자기존중감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전 사용 의도를 결과변수로 하는 모형과 시간 사용 의도를 결과변수로 하는 모형 모두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경로에서는 예상했던 바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사회적 거부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경험을 떠올리는 것에 비하여

타인을 위해 금전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이끌었으나, 타인을 위해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이끈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사회적 거부 경험을 회상하는 것은 소속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사회적 거부와 소속 욕구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더불어, 사회적 거부가 소속 욕구를 매개로 하여 금전 사용 의도 및 시간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거부와 소속 욕구 간에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와 소속 욕구를 매개로 사회적 거부가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합쳐진 조절된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은 여러 시사점과 의의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 간에 비일관적인 관계가 나타난 원인을 밝히고자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주요 의의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들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사회적 거부와 소속 욕구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 선행연구와 다른 조절변수를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 간에 비일관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후, 사람들이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보이는 것을 상황 변수가 설명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Cuadrado, Tabernero, & Steinel, 2015; Maner et al., 2007).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 경험이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높이며, 이러한 사회적 거부 경험과 친사회

적 행동 의도 간의 관계는 자신을 거부했던 상대방과 미래에 다시 교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보았다. 즉, 잠재적으로 자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친사회적 행동을 덜 보이고, 관계를 맺거나 지속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이와 구분되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 간의 일관되지 않은 관계를 개인 특성인 자기존중감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들에서는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다룰 때 사회적 배척, 사회적 배제 및 사회적 거부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Leary, 2001; Williams, 2007), 시간과 금전 사용 의도를 합하여 친사회적 행동 의도로 간주하였다(Twenge et al., 2007; Vohs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라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친사회적 행동 의도와 의 관계에 주목하였으며, 사람들이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시간과 금전의 사용으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특히, 친사회적 금전 사용 의도와 친사회적 시간 사용 의도 고유의 특성에 주목하여, 두 가지를 구분하여 측정하고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런데 본 분석에 앞선 순서 효과 검증에서, 측정 순서에 따라 두 가지 친사회적 행동 의도 간 상관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친사회적 금전 사용 의도를 측정한 후 시간 사용 의도를 측정하였을 때 두 변수 간 상관($r=.42, p<.001$)이 친사회적 시간 사용 의도를 측정한 후 금전 사용 의도를 측정하였을 때의 두 변수 간 상관($r=.22, p<.001$)보다 더 높았다. 또한, 시간 사용 의도를 측정한 후 금전 사용 의도를 측정하였을 때, 146명 중 46명의 연구 참가자들이 사회에 전혀 환원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금전 사용 의도를 측정한 후 시간 사용 의도를 측정하였을 경우, 약 절반의 연구 참가자들이 사회에 전혀 환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상관계수의 차이와 금전 사용 의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두 변수의 측정 순서에 따라 사람들의 응답 경향이 달라지는 것을 짐작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이 같은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측정의 순서에 따라 의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신지은(2018)에서 사용된 친사회적 행동 의도 측정 도구와 같이,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를 측정할 때 연구 참가자들에게 주어질 돈과 시간을 네 가지 가능한 범주에 각각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분배하도록 하였다. 제시한 네 가지 범주 가운데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금전을 사용하는 범주와 사회에 환원하는 범주에 할애한 액수를 합하여 친사회적 금전 사용 의도의 지표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범주와 자원봉사와 같이 먼 타인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범주에 할애한 시간을 합하여 친사회적 시간 사용 의도의 지표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 방식은 단편적으로 기부나 봉사활동과 같이 바람직한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것과 더불어, 가까운 타인에게 금전과 시간을 사용하는 친사회적 행동 의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제안했던 조절된 매개 모형이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고려해야 하는 연구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 조건과 맛있는 음식 조건에서 각각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사회적 거부 경험과 관련된 일련의 정서들, 즉 낮은 공감, 당황스러움 및 상처받은 느낌을 측정하여, 실험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거부 글쓰기 과제 수행 후, 거부 관련 부정 정서에서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거부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이 사회적 거부 경험을 적절히 떠올렸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관찰되었던, 사회

적 거부가 소속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검증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사회적 거부 조작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모형을 검증하기에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부 경험을 글쓰기 과제를 통해 회상시키는 조작이 즉각적인 사회적 거부 또는 만성적인 사회적 거부를 구분하여 조작하는 것에 한계를 가진다(손정식, 이병관, 2016). 또한, Chen과 Latham(2014)에 의하면 조절된 매개 모형과 같이 다양한 변수를 다루는 연구에서 사회적 거부와 같은 조작의 효과가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같은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거부의 조작이 친사회적 행동 의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 거부의 글쓰기 과제에서 연구 참가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채로 정리된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Maner 등(2007)은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여도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우,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더 많이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밝힌 사회적 거부의 경험은 대부분 사회적 거부로 인해 이미 타인과 단절된 경험이었다. 이 같은 이미 회복하지 못한 채 단절된 관계는, 연구 참가자에게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보인다고 하여도 극복하기 어려운 관계로 생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거부 경험의 회상이 연구 참가자의 소속 욕구를 증가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글쓰기 과제를 사용하여 사회적 거부 경험을 회상하도록 할 경우, 사회적 거부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단절시키는 것만은 아니며, 사회적 거부 경험 후에도 다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 조건에서 연구 참가자의 실제 경험을 떠올리는 회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회고적 방법은 연구 참가자가 스스로 밝힐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 고통이 이미 해소가 된 경험만을 떠올리

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부가 소속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험적 설계를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사이버 볼 게임(Williams, 2003)과 같은 실험적 방법으로 사회적 거부 경험을 조작한 후, 사회적으로 거부당한 직후에 소속 욕구가 상승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거부로 인한 소속 욕구 상승 정도가 연구 참가자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가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 소속 욕구를, 그리고 사회적 거부가 소속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로 자기존중감을 투입하였다. Williams(2007)는 사회적 거부로 인해 위협받는 사람들의 네 가지 욕구로 소속감, 자기존중감, 통제감 및 의미있는 존재로서의 감각을 제안하였는데, 이 가운데 소속감과 자기존중감은 관계 욕구로, 통제감과 의미있는 존재로서의 감각은 효능 욕구로 재분류하였다. 이처럼 소속 욕구와 자기존중감이 같은 범주로 분류될 정도로 개념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소속 욕구의 영향을 자기존중감이 조절하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거부를 조작하였을 때, 이를 조작점검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타인에게 소속되어있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을 실시하였다(Baumeister et al., 2005; Pavey et al., 2011; Zadro, Williams, & Richardson, 2004), 이를 통하여 사회적 거부 경험과 소속 욕구 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속 욕구의 측정으로는 사회적 거부 경험 회상으로 인하여 점화된 소속 욕구의 증가를 포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부 경

힘과 친사회적 행동 의도와 의 관계를 소속 욕구와 자기존중감과 외의 매개 변수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Derfler-Rozin 등(2010)은 감사 및 신뢰가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향후에는 감사 성향 및 신뢰를 사용하여 본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감사는 기질적인 변수로, 감사 성향이 높은 것이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더 많이 보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tlett, Condon, Cruz, Baumann, & Desteno, 2012). 신뢰는 타인에게 갖는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타인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하며, 신뢰 또한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매우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De Cremer & Stouten, 2003). 이와 같은 감사 성향과 신뢰의 특징을 고려하여 각 사람들의 감사 성향 및 신뢰 수준의 차이가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지 향후 연구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과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을 떠올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거부는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먼 타인으로부터도 경험할 수 있다. 사회적 거부와 친사회적 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다루는 후속 연구들에서는 가까운 타인에 의한 거부 경험과 먼 타인에 의한 거부 경험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연인이나 가족과 같은 매우 가까운 이들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은 매우 강렬하며, 그로 인한 정서 역시 해소되기 어렵다고 느끼고, 추후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먼 타인으로부터의 거부로 인한 부정 정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해소 가능하며, 굳이 그 상대방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관계 친밀도에 따라 사회적 거부를 당한 이후 친사회적 행동을 취하려는 의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친밀도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의 분석에서 종속변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조작점검 문항 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수의 투입에 주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Spector, Zapf, Chen, & Frese, 2000; Diener, Pressman, Hunter, & Delgado-Gil, 2017). 구체적으로, 종속변수인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거부를 설명하는 분산도 함께 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지 않고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지 않았을 때도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요 가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친사회적 행동 의도는 네 가지 범주를 연구 참가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러한 범주들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분배할 것인지 묻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은 연구 참가자로 하여금 제한적으로 금전 및 시간을 사용하게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연구 참가자들이 네 가지 항목에 금전 및 시간을 분배하였기에, 원래 자신이 금전이나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항목에도 균등하게 분배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또는, 자신이 평소에 금전 및 시간을 자주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범주가 없어 연구 참가자들의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잘 포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여덟째, 본 연구에서 친사회적 금전 사용 의도와 시간 사용 의도를 구분하여 측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친사회적 행동 의도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포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 의도의 상황 또는 방법을 고려하여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다루는 연구들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일상의 여러 상황 속에서 연구 참가자들이 타인에게 얼마나 공감 및 감사를 표현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보이는지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 의도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이지연 외, 2014; Graziano et al., 2007).

마지막으로, 상호의존적 문화인 한국 사람들은 사회적 거부를 피하려고 할 것이며(Hashimoto & Yamagishi, 2013), 타인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Uskul과 Over(2017)에 의하면, 사회적 거부로 인한 반응을 사회적 상호의존이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부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지 못한 것이 한국의 상호의존적 문화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 한국과 독립주의 문화 국가에서 사회적 거부가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훈 (2009).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 학위논문.
- 강관혜 (2011). 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293-316.
- 고려옥 (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연구. 학위논문.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0019370>
- 김민정, 이동귀 (2007). 자기존중감과 심리적 적응-승인 동기를 중재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 김애리, 손영우, & 임혜빈. (2014). 사회적 배척과 소속 욕구가 사회적 사건의 정서 예측에 미치는 영향. 감성과학, 17(3), 83-94.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박지연 (2008). 자아 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1390814>
- 방준호, 최종안, 최인철, 설선훈 (2018). 기부 의사결정에서 즐거움과 의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73-273.
- 손은주 (2016). 행복과 협력 상황에서의 친사회적 행동 : 이기적인 동기의 매개효과. 학위논문, Retrieved from <http://hdl.handle.net/10371/134406>
- 손정식, 이병관 (2016). 사회적 배제와 수혜자의 표정이 공익광고 평가에 미치는 효과: 뒤센 미소와 슬픈 표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7(2), 357-374.
- 신지은 (2018). 외로움과 친사회적 소비의 쾌락적 호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1), 79-99.
- 오민정, 박기경, 박종철 (2017). 사회적 배제를 지각한 사람들은 시간기부를

- 선호하는가? 시간기부를 선호하는가?. 한국마케팅학회, 32(4), 1-18.
- 오민정, 황윤용 (2014). 사회적 배제는 윤리적 소비행동을 감소시키는가? 소비
자학연구, 25(4), 181-203.
- 원정애, 송현주 (2009). 타인의 감정, 바람,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한국 아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4), 51-71.
- 이민선 (2010).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2319612>
- 이선미. (2017). 유아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 언어능력,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학위논문.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4428944>
- 이영애 (1989). 자기존중과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 학위논문.
- 이주희, 김정규. (2015). 자기존중감 및 통제소재가 병사의 군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299-315.
- 이승연, 송경희, 안소현. (2015).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갈등, 거부불안민감성,
소속에 대한 욕구와 또래괴롭힘 동조행동과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51-73.
- 이지언, 정익중, 백종립, Byambaakhuu (2014).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7,
125-155.
- 조궁호 (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와 유학 사상: 그 관련성의 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21-54.
- 조대봉 (1990). 인간 행동의 이해와 자아 실현. 文音社.
- 존 카치오포, 윌리엄 패트릭(2013).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사회신경과학으로 본 인간 본성과 사회의 탄생 (이원기 옮김). 서울:
민음사
- 최석란, 이경희, 이상화, 정정옥 (2003). 유아사회교육의 이해. 서울: 양서원.
- 최지수, 양재원 (2018). 사회적 배척이 얼굴표정 정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의 조절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1), 18-3
0.
- 허청라, 구재선, 서은국. (2014). 기본적 욕구 충족 이후의 행복: 사회적 욕구의
중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59-78.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 586 - 592.
- Alden, L. E., & Trew, J. L. (2013). If it makes you happy: Engaging in kind acts increases positive affect in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Emotion, 13*(1), 64-75.
- Åkerlind, I., & Hörnquist, J. O. (1992). Loneliness and alcohol abuse: A review of evidences of an interplay. *Social Science & Medicine, 34*(4), 405 - 414.
- Aknin, L. B., Barrington-Leigh, C. P., Dunn, E. W., Helliwell, J. F., Burn s, J., Biswas-Diener, R., . . & Norton, M. I. (2013). Prosocial spending and well-being: Cross-cultural evidence for a psychological univer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4), 635-652.
- Aknin, L. B., Dunn, E. W., & Norton, M. I. (2012). Happiness runs in a circular motion: Evidence for a positive feedback loop between pro social spending and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 (2), 347-355.
- Aronoff, J., Stollak, G. E., & Woike, B. A. (1994). Affect regulation and the breadth of interpersonal eng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1), 105-114.
- Asher, S. R., Rose, A. J., & Gabriel, S. W. (2001). Peer rejection in everyday life. *Interpersonal rejection, 105*-142.
- Axelrod, R. (1986). An evolutionary approach to nor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4), 1095-1111.
- Bäck, E. A., Bäck, H., & Knapton, H. M. (2015). Group belongingness and collective action: Effects of need to belong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rotest activitie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6*(5), 537-544.
- Batson, C. D., Ahmad, N., & Stocks, E. L. (2011). *Four forms of prosocial motivation: Egoism, altruism, collectivism, and principlism*. In

- D. Dunning (Ed.), *Frontiers of social psychology. Social motivation* (pp. 103-126). New York, NY, US: Psychology Press.
- Baumeister, R. F., Brewer, L. E., Tice, D. M., & Twenge, J. M. (2007). Thwarting the need to belong: Understanding the interpersonal and inner effects of social exclusio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 506-520.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Twenge, J. M. (2005). Social exclusion impairs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589-604.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aumeister, R. F., & Scher, S. J. (1988). Self-defeating behavior patterns among normal individuals: Review and analysis of common self-destructive tendencies. *Psychological bulletin, 104*(1), 3-22.
- Baumeister, R. F., Tice, D. M., & Hutton, D. G. (1989). Self presentational motivations and personality differences in self 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7*(3), 547-579.
- Baumeister, R. F., Twenge, J. M., & Nuss, C. K. (2002).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cognitive processes: Anticipated aloneness reduces intelligent thou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4), 817-827.
- Baumgardner, J. R. (1991). The interaction between forms of insurance contract and types of technical change in medical care.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36*-53.
- Beekman, J. B., Stock, M. L., & Howe, G. W. (2017). Stomaching rejection: Self-compassion and self-esteem moderate the impact of daily

- social rejection on restrictive eating behaviours among college women. *Psychology & Health*, 32(11), 1348 - 1370.
- Beekman, J. B., Stock, M. L., & Marcus, T. (2016). Need to Belong, Not Rejection Sensitivity, Moderates Cortisol Response, Self-Reported Stress, and Negative Affect Following Social Exclus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6(2), 131-138.
-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 (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765-785.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II: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randen, N. (1969).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A new concept of man's psychological nature*. San Francisco: A Wiley company.
- Brown, J. D. (2010). High self-esteem buffers negative feedback: Once more with feeling. *Cognition and Emotion*, 24(8), 1389-1404.
- Brown, J. D., & Marshall, M. A. (2001). Self-Esteem and Emotion: Some Thoughts about Feeling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5), 575 - 584.
- Buckley, K. E., Winkel, R. E., & Leary, M. R. (2004). Reactions to acceptance and rejection: Effects of level and sequence of relational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1), 14-28.
- Buss, D. M. (1990). The Evolution of Anxiety and Social Exclu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2), 196 - 201.
- Cacioppo, J. T., Hawkley, L. C., & Berntson, G. G. (2003). The anatomy of lonelin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3), 71-74.
- Cacioppo, J. T., Hughes, M. E., Waite, L. J., Hawkley, L. C., & Thisted, R. A. (2006). Loneliness as a specific risk factor for depressive symptoms: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Psychology and Aging*, 21(1), 140-151.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38-549.
- Carter, T. J., & Gilovich, T. (2010). The relative relativity of material and experiential purch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1), 146-159.
- Carter-Sowell, A. R., Chen, Z., & Williams, K. D. (2008). Ostracism increases social susceptibility. *Social Influence*, 3(3), 143-153.
- Cheney, D. L., & Seyfarth, R. M. (2008). *Baboon metaphysics: The evolution of a social mi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eung, E. O., Gardner, W. L., & Anderson, J. F. (2015). Emotionships: Examining people's emotion-regulation relationships and their consequences for well-being.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6(4), 407-414.
- Coopersmith, S. R.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yne, S. M., Nelson, D. A., Robinson, S. L., & Gundersen, N. C. (2011). Is viewing ostracism on television distress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1(3), 213-217.
- Cuadrado, E., Tabernero, C., & Steinel, W. (2015). Motivational determinants of prosocial behavior: What do included, hopeful excluded, and hopeless excluded individuals need to behave prosocially? *Motivation and Emotion*, 39(3), 344-358.
- Dawkins, R. (1976). 1989. *The Selfish Gene*.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Cremer, D., & Stouten, J. (2003). When do people find cooperation most justified? The effect of trust and self-other merging in social dilemmas. *Social Justice Research*, 16, 41 - 52.
- Derfler-Rozin, R., Pillutla, M., & Thau, S. (2010). Social reconnection revisited: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risk on reciprocity, trust, and general risk-t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2(2), 140-150.
- DeWall, C. N., & Baumeister, R. F. (2006). Alone but feeling no pain: Eff

- ects of social exclusion on physical pain tolerance and pain threshold, affective forecasting, and interpers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 1-15.
- DeWall, C. N., & Bushman, B. J. (2011). Social acceptance and rejection: The sweet and the bitte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4), 256-260.
- DeWall, C. N., Deckman, T., Pond, R. S., Jr., & Bonser, I. (2011). Belongingness as a core personality trait: how social exclusion influences social functioning and personality ex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79(6), 1281-314.
- DeWall, C. N., Twenge, J. M., Gitter, S. A., & Baumeister, R. F. (2009). It's the thought that counts: The role of hostile cognition in shaping aggressive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1), 45.
- Diener, E., Pressman, S. D., Hunter, J., & Delgado-Chase, D. (2017). If, Why, and When subjective well-being influences health, and future needed research. *Applied Psychology: Health and well-being*, 9(2), 144-167.
- Dunbar, R. I., & Shultz, S. (2007). Evolution in the social brain. *science*, 317(5843), 1344-1347.
- Eisenberg, N. (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 Eisenberg, N., Fabes, R. A., & Spinrad, T. L. (2006). *Prosocial behavior*. In N. Eisenberg (Vol. Ed) and W. Damon & R. M. Lerner (Series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646 - 718). NY: Wiley.
- Eisenberg, N., &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er, N. I. (2012). The pain of social disconnection: examining the shared neural underpinnings of physical and social pain.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3(6), 421-434.
- Eisenberger, N. I. (2015). Social pain and the brain: controversies, questions

- ns, and where to go from her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6, 601-629.
- Eisenberger, N. I., Lieberman, M. D., & Williams, K. D. (2003). Does rejection hurt? An fMRI study of social exclusion. *science*, 302(5643), 290-292.
- Elmes, D. G., Kantowitz, B. H., & Roediger III, H. L. (2016). 심리학연구방법 9판. (남종호 역) 코리아: 센제이지러닝
- Fiske, S. T., & Yamamoto, M. (2005). *Coping with rejection: Core social motives across cultures*. In K. D. Williams, J. P. Forgas, & W. von Hippel (Eds.), *Sydney Symposium of Social Psychology series. The social outcast: Ostracism, social exclusion, rejection, and bullying* (pp. 185-198). New York, NY, US: Psychology Press.
- Fiske, S. T., & Taylor, S. E. (2013). *Social Cognition: From brains to culture* (2nd ed.). SAGE Publications Ltd.
- Folkes, V. S. (1982). Communicating the reasons for social reje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3), 235-252.
- Ford, M. B., & Collins, N. L. (2010). Self-esteem moderates neuroendocrine and psychological responses to interpersonal rej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3), 405-419.
- Gardner W. L., Pickett, C. L., Brewer, M. B. (2000). Social exclusion and selective memory: how the need to belong influences memory for social ev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486 - 496.
- Garris, C. P., Ohbuchi, K. I., Oikawa, H., & Harris, M. J. (2011). Consequences of interpersonal rejection: A cross-cultural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2(6), 1066-1083.
- Giesen, A., & Echterhoff, G. (2018). Do I really feel your pain? Comparing the effects of observed and personal ostrac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4(4), 550-561.
- Graziano, W. G., Habashi, M. M., Sheese, B. E., & Tobin, R. M. (2007). Agreeableness, empathy, and helping: A person X situation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4), 583-599.

- Greenier, K. D., Kernis, M. H., & Waschull, S. B. (1995). *Not all high (or low) self-esteem people are the same: Theory and research on stability of self-esteem*. In M. H. Kernis (Ed.),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51-71). New York: Plunem Press.
- Gyurak, A., & Ayduk, Ö. (2007). Defensive physiological reactions to rejection: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attentional control on startle responses. *Psychological Science, 18*(10), 886-892.
- Hamilton, W. D. (1971). Geometry for the selfish herd.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31*(2), 295-311.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1969-1982*.
- Hashimoto, H., & Yamagishi, T. (2013). Two faces of interdependence: Harmony seeking and rejection avoida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6*(2), 142-151.
- Hastorf, A. H., & Cantril, H. (1954). They saw a game; a case study.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9*(1), 129.
- Hawley, L. C., Burleson, M. H., Berntson, G. G., & Cacioppo, J. T. (2003). Loneliness in everyday life: Cardiovascular activity, psychosocial context, and health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1), 105-120.
- Hawley, L. C., & Cacioppo, J. T. (2010). Loneliness matter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of consequences and mechanism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40*(2), 218-227.
- Hayes, A. F.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 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이형권 편). 경기: 신영사. (원본출간년도: 2013)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4), 766-794.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4865), 540-545.
- Jiang, J., Zhang, Y., Ke, Y., Hawk, S. T., & Qiu, H. (2015). Can't buy m

- e friendship? Peer rejection and adolescent materialism: Implicit self-esteem as a mediat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8, 48-55.
- Joiner Jr, T. E., Brown, J. S., & Wingate, L. R. (2005). The psychology and neurobiology of suicidal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287-314.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1), 1-26.
- Kernis, M. H., Grannemann, B. D., & Barclay, L. C. (1989).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nger arousal and hos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6), 1013.
- Kim, Y., Kasser, T., & Lee, H. (2003). Self-Concept, Aspirations, and Well-Being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3(3), 277 - 290.
- Kitayama, S., Mesquita, B., & Karasawa, M. (2006). Cultural affordances and emotional experience: socially engaging and disengaging emotion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5), 890-903.
- Koo, M., & Fishbach, A. (2016). Giving the Self.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7(4), 339-348.
- Lakin, J. L., Chartrand, T. L., & Arkin, R. M. (2008). I am too just like you: Nonconscious mimicry as an automatic behavioral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Psychological science*, 19(8), 816-822.
- Leary, M. R., Kelly, K. M., Cottrell, C. A., & Schreindorfer, L. S. (2013). Construct validity of the need to belong scale: Mapping the nomological network.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5(6), 610-624.
- Leary, M. R., Twenge, J. M., & Quinlivan, E. (2006). Interpersonal rejection as a determinant of anger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1), 1-13.

- ial Psychology Review*, 10(2), 111-132.
- Leary, M. R. (2001). *Interpersonal reje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3), 518-530.
- Leclerc, F., Schmitt, B. H., & Dube, L. (1995). Waiting time and decision making: Is time like mone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1), 110-119.
- Lee, J., & Shrum, L. (2012). Conspicuous consumption versus charitable behavior in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A differential needs explan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9(3), 530-544.
- Lee, J., Shrum, L., & Yi, Y. (2014). Cultural Influence on Conspicuous Consumpt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and the Role of Communication Norm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42, 205-209.
- Lee, L., Piliavin, J. A., & Call, V. R. (1999). Giving time, money, and bloo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276-290.
- Loveland, K. E., Smeesters, D., & Mandel, N. (2010). Still Preoccupied with 1995: The Need to Belong and Preference for Nostalgic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 393-408.
- Macdonald, G., & Leary, M. R. (2005). Why does social exclusion hur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physical pain. *Psychological Bulletin*, 131(2), 202-22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4-253.
- Maner, J. K., DeWall, C. N., Baumeister, R. F., & Schaller, M. (2007). Does social exclusion motivate interpersonal reconnection? Resolving the "porcupine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42-55.
- Maslow, A.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 Mead, N. L., Baumeister, R. F., Stillman, T. F., Rawn, C. D., & Vohs, K. D. (2011). Social Exclusion Causes People to Spend and Consume Strategically in the Service of Affili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5), 902-919.
- Mellor, D., Stokes, M., Firth, L., Hayashi, Y., & Cummins, R. (2008). Need for belong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3), 213 - 218.
- Mogilner, C. (2010). The pursuit of happiness: Time, money, and social connection. *Psychological Science*, *21*(9), 1348-1354.
- Mogilner, C., & Aaker, J. (2009). The time vs. money effect: Shifting product attitudes and decisions through personal conne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6*(2), 277-291.
- Molden, D. C., Lucas, G. M., Gardner, W. L., Dean, K., & Knowles, M. L. (2009). Motivations for prevention or promotion following social exclusion: being rejected versus being ignor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2), 415-431.

- Molden, D. C., & Maner, J. K. (2013). *How and when exclusion motivates social reconne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852–863.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Nezlek JB, Kowalski RM, Leary MR, Blevins T, Holgate S. (1997). Personality moderators of reactions to interpersonal rejection: depression and trait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1235 - 1244.
- Okada, E. M., & Hoch, S. J. (2004). Spending time versus spending mone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1*(2), 313–323.
- Pavey, L., Greitemeyer, T., & Sparks, P. (2011). Highlighting relatedness promotes prosocial motives and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7), 905–917.
- Perdue, C. W., Dovidio, J. F., Gurtman, M. B., & Tyler, R. B. (1990). Us and them: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process of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475.
- Pickett, C. L., Gardner, W. L., Knowles, M. (2004). Getting a cue: the need to belong and enhanced sensitivity to social c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1095 - 1107.
- Piff, P. K., Kraus, M. W., Cote, S., Cheng, B. H., & Keltner, D. (2010). Having less, giving mor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rosocial

-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5), 771–784.
- Pillemer, D. B., Ivcevic, Z., Gooze, R. A., & Collins, K. A. (2007). Self-esteem memories: Feeling good about achievement success, feeling bad about relationship distr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9), 1292–1305.
- Reed, I. I., & Aquino, K. F. (2003). Moral identity and the expanding circle of moral regard toward out-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270–1286.
- Reed, A., Aquino, K., & Levy, E. (2007). Moral identity and judgments of charitable behaviors. *Journal of Marketing*, 71(1), 178–193.
- Reed, I. I., Kay, A., Finnel, S., Aquino, K., & Levy, E. (2016). I don't want the money, I just want your time: How moral identity overcomes the aversion to giving time to prosocial ca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3), 435–457.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 Ryan, R. M. (2000).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4), 419–43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hton, J. P. (1989). Genetic similarity, human altruism, and group selec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2(3), 503–518.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chroeder, D. A., & Graziano, W. G. (Eds.). (2015). *The field of prosocial behavior*. US: Oxford University Press.
- Shneidman, E. S., (1998). *The suicidal mind*.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E. A., & Bird, R. L. B. (2000). Turtle hunting and tombstone opening: Public generosity as costly signaling.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1(4), 245-261.
- Smith, S. M., & Petty, R. E. (1995). Personality moderators of mood congruency effects on cognition: The role of self-esteem and negative mood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6), 1092-1107.
- Tesser, A. (1988). Toward a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of social behavior.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 181-227.
- Steele, C. M. (1988). The psychology of self-affirmation: Sustaining the integrity of the self.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 261-302.
- Spector, P. E., Zapf, D., Chen, P. Y., & Frese, M. (2000). Why negative affectivity should not be controlled in job stress research: Don'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 wate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1, 79 - 95.
- Steele, C. M., Spencer, S. J., & Lynch, M. (1993). Self-image resilience and dissonance: the role of affirmational resour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6), 885-896.
- Thornhill, N. W., & Thornhill, R. (1991). An evolutionary analysis of psychological pain following human (Homo sapiens) rape: IV. The eff

- ect of the nature of the sexual assault. *Journal of Comparative Psychology*, 105(3), 243-252.
- Tomasello, M. (2014). The ultra-social anima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3), 187-194.
- Twenge, J. M.,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Bartels, J. M. (2007). Social exclusion decrease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56-66.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1069.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2), 261-272.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3). Social exclusion and the deconstructed state: time perception, meaninglessness, lethargy, lack of emotion, and self-awar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3), 409-423.
- Uskul, A. K., & Over, H. (2017). Culture, social interdependence, and ostracism. *Current direction of psychological science*, 26(4), 371-376.
- Van Orden, K. A., Witte, T. K., Cukrowicz, K. C., Braithwaite, S. R., Selby, E. A., & Joiner Jr, T. E.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2), 575-600.
- Vignoles, V. L., Regalia, C., Manzi, C., Gollidge, J., & Scabini, E. (2006). Beyond self-esteem: influence of multiple motives on identity cons

- tru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2), 308-333.
- Vohs, K. D., Mead, N. L., & Goode, M. R. (2008). Merely activating the concept of money changes personal and interpersonal behavio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3), 208-212.
- Warburton, J., & Terry, D. J. (2000). Volunteer decision making by older people: A test of a revis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2(3), 245-257.
- Warburton, W. A., Williams, K. D., & Cairns D. R. (2006). When ostracism leads to agg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trol depriv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2), 213 - 220.
- West, T. V., Magee, J. C., Gordon, S. H., & Gullett, L. (2014). A little similarity goes a long way: The effects of peripheral but self-revealing similarities on improving and sustaining interra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1), 81-100.
- Williams, G. C. (1966). Natural selection, the costs of reproduction, and a refinement of Lack's principle. *The American Naturalist*, 100(916), 687-690.
- Williams, K. D. (2007). Ostracism.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425-452.
- Williams, K. D. (2009). *Ostracism: A temporal need-threat model*.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San Diego, CA, US: Elsevier Academic Press.
- Williams, K. D., Cheung, C. K.,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

- ocial psychology*, 79(5), 748–762.
- Williams, K. D., & Nida, S. A. (2011). Ostracism: Consequences and cop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2), 71–75.
- Williams, K. D., & Sommer, K. L. (1997). Social ostracism by coworkers: Does rejection lead to loafing or compens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7), 693–706.
- Wood, W. (2000). Attitude change: Persuasion and social influ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1), 539–570.
- Yamagishi, T., Hashimoto, H., & Schug, J. (2008). Preferences versus strategies as explanations for culture-specific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19(6), 579 - 584.
- Yi, Y., Kim, S. Y., & Hwang, J. W. (2017). Climbing down the ladder makes you play it safe: The effect of the status of a rejecter on product evalua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51, 946–959.
- Zadro, L., Williams, K. D., & Richardson, R. (2004). How low can you go? Ostracism by a computer is sufficient to lower self-reported levels of belonging, control, self-esteem, and meaningful exist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4), 560–567.
- Zhong, C. B., & Leonardelli, G. J. (2008). Cold and lonely: Does social exclusion literally feel cold? *Psychological Science*, 19(9), 838–842.
- Zhong, C. B., Liljenquist, K. A., & Cain, D. M. (2009). *Moral self-regulation: Licensing and compensation*. In D. De Cremer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ethical behavior and decision making* (pp.75–89). Charlotte, NC: Information Age Publishing.

ABSTRACT

Effect of Social Rejection on Prosocial Behavior

Intention:

Moderated Mediation of Need to Belong and
Self-Esteem

Boram Sung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According to numerous previous studies, the social rejection has the contradictory effects on prosocial behavior intention. Many studies have shown whether the social rejection can increase prosocial behavior in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need to belong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jection and prosocial behavior intention. The total 296 Koreans who work for wage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conditions: one is the social rejection condition and the other is control condition. The participants reported their levels of self-esteem, need to belong and prosocial behavior intention through the macromilembrian. This study has

tested two moderated mediation models, which are one model with intention to using money prosocially as a dependent variable (used data from 156 participants for the analysis) and the other model with intention to using time prosocially as a dependent variable (used data from 140 participants for the analysis). Two moderated mediation models' data have been analyzed separately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effec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jection and prosocial behavior intention through the need to belong have been analyzed. The results through SPSS PROCESS macro have reveal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using money intention and using time intention are not significant, but some significant directions are meaningful: priming feelings of being socially rejected increase the intention to using money prosocially, and need to belong increase the intention to using money and time prosocially. These results support the existing theo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jection and prosocial behavior inten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have been discussed.

Keywords: social rejection, prosocial behavior intention, need to belong, self-esteem

부 록

부록 1. 연구 질문지

부록 1-1. 자기존중감

부록 1-2. 점화 조건

부록 1-3. 조작 점검

부록 1-4. 무관 과제

부록 1-5. 소속 욕구

부록 1-6. 친사회적 행동 의도

부록 1. 연구 질문지

부록 1-1. 자기 존중감

아래에 제시되는 문항들을 읽고, 각각이 평소에 귀하께서 자신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적어도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많은 장점과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느낀다.	1	2	3	4	5
3 나는 모든 면에서 내가 실패자라고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많지 않다고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좋은) 태도를 갖고 있다.	1	2	3	4	5
7 나는 전반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나를 더 존중하지 못해 안타깝다.	1	2	3	4	5
9 나는 가끔 내가 전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0 나는 가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부록 1-2. 점화 조건

아래의 지시문을 읽고, 제시된 칸에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실험 조건>

귀하께서 과거에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셨던 경험을 떠올려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귀하와 어떤 관계였으며, 그 사람이 귀하를 어떻게 거부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부를 당하던 때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5분 간 그 때가 언제였는지, 어디였는지 등 그 경험을 생생하게 떠올려 주십시오. 아래의 칸에 귀하를 거부한 사람의 이니셜을 적고, 그 때의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한 문장씩 총 네다섯 문장으로 적어 주십시오.

(만약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셨던 경험이 없다면, 귀하와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거부를 당한다면 어떤 것 같은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주십시오. 아래의 칸에 그 사람의 이니셜과 그 사람에게 거부를 당한다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 것 같은지 한 문장 씩 총 네다섯 문장으로 적어 주십시오.)

1. 아래의 칸에 떠올리신 사람의 이니셜을 적어주십시오.

2. 아래의 칸에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한 문장으로 적어주십시오.

3. 아래의 칸에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한 문장으로 적어주십시오.

4. 아래의 칸에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한 문장으로 적어주십시오.

5. 아래의 칸에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한 문장으로 적어주십시오.

6. 아래의 칸에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한 문장으로 적어주십시오.

<통제 조건>

귀하께서 과거에 매우 맛있는 음식을 드셨던 경험을 떠올려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음식이 무엇이었으며, 그 음식에서 어떤 맛이 났고, 어느 정도 맛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맛있는 음식을 먹던 때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그 때가 언제였는지, 어디였는지 등 5분 간 그 경험을 생생하게 떠올려 주십시오. 아래의 칸에 그 음식의 이름을 적고, 그 때의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한 문장씩 총 네 다섯 문장으로 적어 주십시오.

(만약 매우 맛있는 음식을 드셨던 경험이 없다면, 매우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어떤 것 같은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주십시오. 아래의 칸에 그 음식의 이름과 그 음식을 먹는다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 것 같은지 한 문장씩 총 네다섯 문장으로 적어 주십시오.)

1. 아래의 칸에 떠올리신 음식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2. 아래의 칸에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한 문장으로 적어주십시오.

3. 아래의 칸에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한 문장으로 적어주십시오.

4. 아래의 칸에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한 문장으로 적어주십시오.

5. 아래의 칸에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한 문장으로 적어주십시오.

6. 아래의 칸에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한 문장으로 적어주십시오.

부록 1-3. 조작 점검

아래에 제시되는 항목들을 읽고, 각각이 현재 귀하의 감정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마음이 아픈	1	2	3	4	5
2 마음이 따뜻한	1	2	3	4	5
3 인정 어린 마음이 드는	1	2	3	4	5
4 당황스러운	1	2	3	4	5

아래에 제시되는 문항들을 읽고, 각각이 앞서 떠올리신 귀하의 경험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하께서 경험하신 일은 강렬했다.	1	2	3	4	5
2 귀하께서 경험하신 일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	1	2	3	4	5
3 귀하께서 경험하신 일이 생생하게 다시 떠올랐다.	1	2	3	4	5

부록 1-4. 무관 과제

<무관 과제 1>

아래의 보기는 귀하께서 어떤 상황을 선호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어진 두 개의 보기 중 귀하께서 무엇을 더 하고 싶으신지 선택해 주십시오.

1.	1) 엄청나게 운이 좋은 것
	2) 엄청나게 스마트한 것
2.	1)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것
	2) 한 명을 부활시키는 것
3.	1) 거짓말만 할 수 있는 것
	2) 마음 속 생각이 소리쳐 나오는 것
4.	1) 평생 물 위에서 걸을 수 있는 것
	2) 인생에서 3시간 동안 날 수 있는 것
5.	1) 아무도 귀하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
	2) 항상 사람들이 귀하를 재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
6.	1) 평생 집이 없지만 자유로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
	2) 평생 떠나지 못하는 호화 맨션에서 사는 것
7.	1) 25살이 됐을 때, 15살까지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잇는 것
	2) 25살이 됐을 때, 최근 5년 간의 기억을 잇는 것
8.	1) 날 수 있는 것
	2) 투명인간이 되는 것
9.	1) 16km를 뛸 후에 5km를 더 뛰어야 하는 것
	2) 16km를 뛸 후에 16km를 걷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무관 과제 2>

아래의 질문들은 귀하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어진 보기 중에 귀하께서 더 선호하시는 쪽을 선택해 주십시오.

1.	먹는다면	① 사과	② 오렌지
2.	먹는다면	① 와플	② 팬케이크
3.	간다면	① 버거킹	② 맥도날드
4.	먹는다면	① 브로콜리	② 옥수수
5.	먹는다면	① 배	② 바나나
6.	마신다면	① 펩시콜라	② 코카콜라

부록 1-5. 소속 욕구

아래에 제시되는 문항들에 귀하께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생각하신 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숫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대체 로 동 의 하 지 않 는 다.	어 느 쪽 도 아 니 다.	대 체 로 동 의 한 다.	매 우 동 의 한 다.
1.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2.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하거나 거부할 만한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쓰는지 여부를 거의 염려하지 않는다.	1	2	3	4	5
4.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1	2	3	4	5
5. 나는 타인이 나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6. 나는 혼자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7. 오랫동안 친구들과 떨어져 있더라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8. 나는 친구들이나 집단에 속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1	2	3	4	5
9. 내가 다른 사람들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때 나는 굉장히 신경을 쓴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 나는 쉽게 상처를 받는다.	1	2	3	4	5

부록 1-6. 친사회적 행동 의도

<금전 사용 의도>

만약 이번 달에 귀하께 100만원의 여윌돈이 생긴다면, 아래의 네 가지 항목 각각에 얼마만큼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사용하고 싶으신 금액을 만 원 단위로 적어주십시오. 귀하께서 네 가지 항목에 사용하신 금액의 총합은 100만원이어야 합니다.

	항목	사용 금액
1	저축 및 투자 (예: 예금, 펀드)	_____만원
2	자신을 위한 소비 (예: 쇼핑, 여행)	_____만원
3	다른 사람을 위한 소비 (예: 선물, 밥 사기)	_____만원
4	사회에 환원 (예: 자선 단체 기부)	_____만원
	총 금액	100만원

<시간 사용 의도>

만약 이번 달에 귀하께 24시간의 여유 시간이 생긴다면, 아래의 네 가지 항목 각각에 얼마만큼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사용하고 싶은 시간을 한 시간 단위로 적어주십시오. 귀하께서 네 가지 항목에 사용하신 시간의 총합은 24시간이어야 합니다.

	항목	사용 시간
1	개인 정비 및 휴식 (예: 미용, 건강관리, TV 시청)	_____시간
2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 (예: 학원, 독서, 취미 활동)	_____시간
3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 사용 (예: 가족모임, 친구모임, 동호회 활동)	_____시간
4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 (예: 자원 봉사)	_____시간
	총 시간	24시간